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헬로우 넥센



NEXEN facebook



www.nexentire.com

HELLO NEXEN
Vol.62 2016년 신년호

사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보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사보 담당자
055-370-4118
hellonexen@nexentire.co.kr
독자엽서 참여 가능합니다.

팀 스토리 멘토 앤 멘티 오 해피데이

팀원들과 팀워크를 다지며 하루를 즐기고 싶으신 분,
어색한 선배 또는 후배와 친해지고 싶으신 분,
오랜만에 가족끼리 '공식적인' 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
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넥센 요리사

이번 호 68페이지 '넥센 요리사'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따
라 할 수 있는 두부 요리가 소개되었습니다. 사보를 보고 따
라 한 두부 요리든 스스로 개발한 두부 요리든, 직접 만든
두부 요리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가족, 동료와 함께 나눴
던 두부 요리의 사진과 레시피를 보내주세요.

이 외에도 사보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주세요.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가
더욱 풍성하고 재미있는 사보를 만듭니다!

※ 사보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참을 통해
'주목 아이템'에서 소개된 아이템을 포함한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6년 신년호 통권 62호

발행인 이현봉 발행일 2016년 1월 1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타이어㈜ 담당 경영관리팀 박수현, 조미오(055-370-4118) 기획 및 출판 (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디자인 노은주, 정윤희, 이예슬 사진 (주)유닉하우스 (02-511-9205) 교정 정수완 표지 일러스트 LEMO(김수민) 프로세스 (주)하이테크컴 (02-741-3377) 인쇄 (주)두경프린텍

NEXEN zone

04 포커스 온 넥센
내일을 향한 넥센타이어의 성과와 역량

06 넥센 이슈 1
부베니체 우스티 주지사 창녕공장 방문

08 넥센 이슈 2
한국영업총괄 · 해외영업총괄 워크숍

10 넥센 뉴스
넥센타이어의 이모저모

14 넥센 그룹 탐방
더 큰 내일을 여는 글로벌 기업, (주)넥센

18 팀 스토리
강서지점 사우들의 문화회식
연극 〈쉬어매드니스〉 관람

22 멘토 앤 멘티
연구기획팀 김재영 · 김옥재 사우의
스릴 만점 레포트츠 즐기기

26 오 해피데이
PCR파트 안현인 사우 가족의
실내 동물원 나들이

30 현장 스케치
타이어테크 부산대교점

34 드라이빙 퀴즈
운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상식



표지 이야기

겨울철, 혹한의 도로 조건에도 탁월한
안정성을 발휘하는 원가드 아이스 SUV,
방향성 패턴 블록과 센터리브 채움으로
눈길에서의 제동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당신의 안전한 드라이빙 파트너,
원가드 아이스 SUV.

SPECIAL zone

36 스페셜 테마
NEXEN ROAD 고속도로를 달리다

38 스페셜 테마 1
곧게 뻗은 탄탄대로,
흥미진진한 고속도로 이야기

42 스페셜 테마 2
들어는 봤나? 고속도로 미스터리

44 스페셜 테마 3
고속도로 이색 휴게소 BEST 5

46 피플 인사이드
하이웨이 켄, 트로트 가수 금잔디

50 보이스 토크
넥센인 앙케이트
'당신의 고속도로는 어떤가요?'

52 트래블 로드
서해안의 진주, 전북 부안

58 카 앤 타이어
자동차 필수 옵션 '에어컨' 쉽게 이해하기

62 넥센 대담
야구광 사우들의 맛있는 수다

66 주목 아이템
특별한 자리를 더욱 특별하게 빛낼
'패키지 알코올 아이템'

LIFE zone

68 넥센 요리사
쉽고 편하게 즐기는 두부

74 좋은 아빠 프로젝트
항상 일만 하던 아빠가
항상 일만 하는 아빠에게

78 넥센 탐구생활
임직원 가족, 창녕공장을 찾다

82 문화 살롱
어른인 듯, 어른 아닌, 어른 같은 취미,
키덜트 문화 속으로

86 건강 돌보기
과도한 음주로부터 간을 보호하자

88 직장인 백서
나의 엑셀 활용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90 처세 방법
직장 생활 실전 매뉴얼 'How to 거절'

94 머니 레시피
자동차 경매, 어렵지 않아요!

98 사내 메신저
사보 참여 사우 후기

22

멘토 앤 멘티

연구기획팀 김재영 · 김옥재 사우의
스릴 만점 레포트츠 즐기기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78

넥센 탐구생활

임직원 가족, 창녕공장을 찾다

1942~2016

1956

흥아타이어공장 모습
전후 국내 최초 자동차 타이어 생산



2006



중국 청다오공장 기공
세계 무대 진출 기반 마련

창녕공장 가동
세계 최첨단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성 향상



양산 제2공장 가동 시작
UHP(초고성능) 타이어 생산 시작



2004

2012

2015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3년 연속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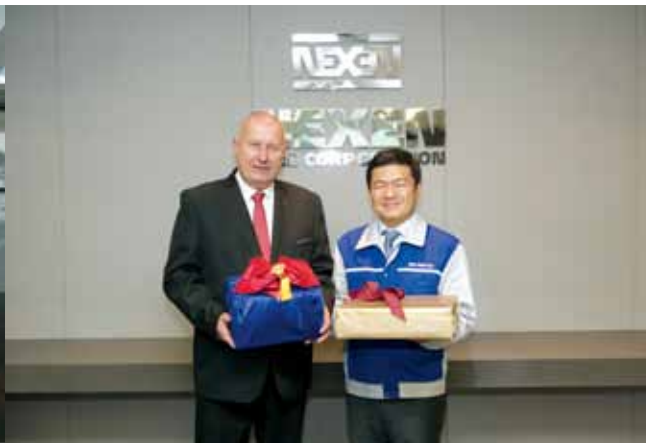
유럽 디자인 어워드 수상
2014년 세계 타이어업계 최초로 4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이후
독일 '레드닷', 이탈리아 'A' 디자인 어워드 잇따른 수상



내일을 생각하는 기업,
내일을 준비하는 기업,
내일의 가치를
창조하는 넥센타이어.

체코공장 기공
유럽 시장 공략 교두보 마련





체코 관계자들은
체코공장 설립이
자테츠시 도시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올드리치 부베니체 우스티 주지사
창녕공장 방문

넥센타이어 체코공장의 청사진을 그린다

글 이진우 사진 이용관

지난 11월 23일, 올드리치 부베니체 우스티 주지사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을 방문했다. 지난 10월 체코공장 기공식 이후 직접 창녕공장을 방문해 현지 공장 건설에 관련한 협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창녕공장에 도착한 부베니체 주지사는 강호찬 사장 및 넥센타이어 임직원과 인사를 나눈 후 회의실로 이동해 양 공장에 대한 브리핑을 청청했다. 지난해 기공한 체코공장은 창녕공장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건설될 예정이기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브리핑이 끝난 후에는 체코공장의 건설 일정을 체크하며, 공사 진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체코공장 부지 주변 고속도로, 하수처리 시설 등의 주변 인프라 지원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약속했다. 관계자들은 '창녕공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처럼, 체코공장 설립 또한 자테츠시 도시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이용용 부사장과 체코법인 페트르의 가이드로 시작된 공장 투어. 압연공정부터 완제품 창고까지 전 공정을 유심히 둘러본 부베니체 주지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내부 환경과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에 특히 큰 관심을 보였다. 창녕공장을 모두 둘러본 부베니체

주지사와 체코 관계자들은 모두 부산으로 이동해 해운대에 마련된 요트에 올랐다. 부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강호찬 사장의 배려로 진행된 요트 투어였다. 광안대교, 수영만 요트경기장 등을 둘러본 관계자들은 광활하게 펼쳐진 부산 바다 한가운데서 간단한 음식을 즐기며 체코공장의 미래, 넥센타이어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부베니체 주지사는 "넥센타이어의 우수한 기술력을 직접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모든 관계자가 나서서 체코공장 건설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로 이번 일정을 마무리했다. 10



2016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목표 달성 결의를 다진 한국영업총괄과 해외영업총괄

글 / 사진 서정운(마케팅팀) · 오병무(북미팀)

지난 11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한국영업총괄의 혁신 전략 보고 워크숍이 열렸다. 강호찬 사장 외 임직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차별! 혁신! 보완! 2016년 판을 바꾸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감 함양과 정신력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에 각 직급별로 팀을 구성하여 'NEXT LEVEL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였고, 팀워크 강화 훈련인 '정신 무장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오후 9시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총 10km 야간행군을 메인으로, 한계 돌파 트레킹, 팀별 마라톤 등이 진행되었으며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종료됐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모든 임직원이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한 명의 낙오자도, 부상자도 없이 행군을 마쳤다.

이어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 강원도 정동진에서 해외영업총괄의 야간 행군이 진행됐다. 2016년 경영 계획 달성을 위해 계획된 야간 행군에는 총 104명이 참석했다. 모든 인원이 자정에 기상해 새벽 1시 옥계해수욕장에서 정동진 해돋이 광장으로 출발했다. 무려 5시간이 걸리는 고된 행군이었지만 씩씩한 걸음을 이어나갔다. 또 이번 행군은 해외지법인, 해외영업총괄 인원이 20명씩 5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덕에 서로 돈독한 친목을 다질 수 있었다. 어느덧 아침 6시 반, 모두가 안전하게 해돋이 광장에 도착했다. 보통 정동진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확률은 30%지만 모든 인원의 결의가 하늘에 닿았는지 선명한 일출을 볼 수 있었다. 2016년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더 높이며 소망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영업총괄과 해외영업총괄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를 계기로 끝없는 성장 가도를 달릴 2016년 한 해가 기대된다.⑩

News

NEXEN ZONE | 넥센 뉴스



체코 신공장 기공식 개최

넥센타이어가 지난 10월 1일, 유럽 시장의 타이어 수요 증가에 따라 판매를 확대하고 주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에 신차용 타이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체코 신공장 건설 기공식을 가졌다.

2018년 첫 가동에 들어가는 체코공장은 약 65만㎡(20만 평)에 총 1조 원 이상의 투자로 이루어지며, 시장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증설을 통해 연간 1,200만 개 이상의 타이어를 생산할 계획이다.

체코는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유럽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유럽 시장으로의 교두보도 마련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공장이 건설될 자테츠 지역은 인력 조달을 비롯해 각종 배후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 반경 400km 이내에 약 30여 개 자동차 업체가 위치해 있어 신차용 타이어 공급에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체코공장은 중국 청도에 이은 두 번째 해외 공장으로 넥센타이어 제2의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유럽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TOP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News

Hello NEXEN



넥센타이어, 美 <컨슈머리포트> 평가에서 우수 성능 입증

넥센타이어가 지난 10월 19일, 미국의 권위 있는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가 실시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Very Good’ 등급을 받았다.

이번 테스트는 넥센타이어를 비롯해 글로벌 TOP 브랜드의 사계절용 타이어 16개, 겨울용 타이어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마른 노면 및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 조정 안정성, 수막현상, 승차감, 소음 등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넥센타이어의 ‘N5000 Plus’는 연비 강화를 위한 낮은 회전 저항과 긴 마모 수명에서, ‘윈가드 윈스파이크’는 눈길 견인력과 수막현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넥센타이어, 유럽 시장 첫 TV 광고 시행

넥센타이어가 유럽 지역 54개국에 TV 광고를 진행 중이다. 2016년 5월까지 유럽 1위 스포츠 채널인 ‘유로스포트’를 통해 30초 분량의 광고를 방영한다. 이번 광고는 맨체스터시티 FC 선수로 의인화된 넥센타이어가 골을 넣는 모습을 통해 넥센타이어의 뛰어난 기술력과 역동적인 기업 이미지를 표현했다.

넥센타이어는 맨체스터시티 FC의 공식 파트너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 중이며, 유럽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넥센타이어, '넥센 히어로즈'와 메인 스폰서십

재계약 체결

넥센타이어가 지난 11월 5일,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와 스폰서십을 체결하고 2018년까지 3년 동안 연장 계약을 진행했다. 이로써 국내 프로야구팀 가운데 구단주의 브랜드가 아닌 메인 스폰서십을 토대로 운영되는 이례적 성공 사례를 9년간 이어가게 되었다.

넥센타이어의 이번 메인 스폰서 계약 연장에는 지난 6년간 프로야구를 통해 넥센타이어가 국민들에게 보다 익숙한 브랜드가 되었다는 점과,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넥센타이어는 글로벌 우량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넥센 히어로즈 또한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내며 기업과 야구단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호찬 사장은 “이번 스폰서십 연장은 넥센타이어를 응원하는 팬과 여론에 보답함과 동시에 넥센 히어로즈와의 동반자적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며 “기업의 스포츠마케팅이 한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내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로 다가가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대통령상’ 5년 연속 수상

넥센타이어가 제41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각각 수상하며 5년 연속 전국 대회를 제패했다. 이 대회는 기업의 품질 혁신 우수 사례를 경쟁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전국 17개 시도 대표 293개 분임조가 13개 분야에서 경합을 펼쳤다.

넥센타이어는 자유형식, 현장개선 총 2개 분야에 경상남도 대표로 출전해 생산팀 재료파트 양산천 분임

조가 ‘스틸 벨트 재단기 작업 방법 개선으로 전폭 부적합품률 감소’라는 주제로 대통령 금상을, 생산2팀 PCR파트 두레 분임조가 ‘성형공정 설비 개선으로 기포 부적합품률 감소’라는 주제로 대통령 은상을 받았다.

공장혁신사무국에서는 역대 대통령상 수상 분임조 중 1개 분임조를 선정하여, 올해 태국에서 개최되는 ICQCC(국제품질분임조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넥센타이어의 브랜드 가치를 국제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넥센타이어,

‘2015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2년 연속 수상

넥센타이어가 지난 11월 25일, ‘2015년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자동차/항공/부품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은 기업이나 기관이 운영 중인 SNS 매체를 평가해 선정하는 상으로, 국내 타이어업체 중에는 넥센타이어가 유일하게 수상했다.

넥센타이어는 페이스북과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타

이어 관련 정보를 흥미롭게 전달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김홍상 이사, ‘2015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

지난 11월 18일, 글로벌품질센터 김홍상 이사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하는 제4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김 이사는 표준 재정비, 품질 모니터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품질경영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재정립하였으며, NQAS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해외 OE에 공급할 수 있는 품질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홍상 이사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적인 품질 보증 및 서비스를 기획하고, 전사적 품질경영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Global Top 품질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전기파트 이승준 대리,

‘2015 전기안전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지난 11월 6일 전기파트 이승준 대리가 (사)한국에너지공학회와 투데이에너지에서 주관하는 2015 환경·에너지대상에서 전기안전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양산공장의 전력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승준 대리는 한 건의 사고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노후 설비 개선, 고전압 전력계통 분리 관리, 주기적 설비 점검 등의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승준 대리는 “무정전 전력 공급으로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혁신을 거듭한 끝에 글로벌 종합고무제품기업으로 성장한 (주)넥센은 세계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용 튜브를 기반으로 산업용 솔리드타이어, 브라다(Bladder), 골프공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1999년에 넥센타이어(주)(前 우성타이어)를 인수해 자동차 타이어 생산의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3년엔 넥센그룹의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을 다졌다.

(주)넥센은 그룹 관계사 간 수직·수평 계열화로 또 한 번의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및 해외 타이어업계에 큰 획을 그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넥센타이어와 자동차의 신경망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하는 넥센테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과

소통하는 KNN 등을 통해 사업 영역 다각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장학재단을 설립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사회 환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주)넥센은 타이어 이너 튜브, 솔리드타이어, 브라다, 골프공을 생산하는 본사 및 김해공장, 자동차 내 웨더스트립, 고무호스 등의 원료인 CMB를 생산하는 시화공장, 제품의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중국 칭다오공장을 가동하며 탄탄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탄생한 제품은 현재 세계 140여 개국으로 수출되며 그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더 큰 내일을 여는 글로벌 기업

(주)넥센

넥센 그룹 탐방 코너에서는 넥센타이어와 그 성장의 걸음을 함께하고 있는 계열사를 차례로 소개한다. 새해를 맞은 첫걸음으로 넥센그룹의 지주회사로서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주)넥센을 찾았다.

글 이진우 사진 이용관





세계 No.1
종합고무제품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한
(주)넥센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높은 안전성으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타이어 이너 튜브는 모든 자동차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규격으로 생산해 동종 업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게차와 전동차 등 산업용 차량에 장착되는 솔리드타이어는 독자 개발한 복합 패턴을 통해 더욱 오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무, 카본블랙, 실리카 배합 기술의 결정체인 CMB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과 사양에 맞춰 생산·공급하고, 정밀한 설계로 내구성이 뛰어난 브라다스 타이어 생산 시 형태를 완벽하게 유지하도록 품질과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있다. (주)넥센의 기술력은 '세인트나인' 골프공에도 녹아 있는데, 그동안 축적된 고무공학의 노하우와 모던아트,

색채심리학을 접목하여 최고 성능의 골프공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공급함으로써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주)넥센. ISO 9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중국공인제품안전인증 등 각종 기술 인증과 특허 획득으로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대학과의 산학 협력으로 획기적인 기술 개발에 힘을 더하고 있다. 또 주 1회 정도 사내 직원들끼리 한 가지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는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열정이 돋보이는 자리로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기도 한다.

내일을 준비하며 내일의 가치를 창조하는 (주)넥센. 오랜 노하우와 최고의 기술력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세계 No.1 종합고무제품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한 (주)넥센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





강서지점의 특별했던 오후 나들이 연극 〈쉬어매드니스〉 관람

함께한 시간과 상관없이 볼트와 너트처럼 호흡이 척척 들어맞는 이들이 있다. 바로 강서지점의 6인방. 한데 어우러졌을 때 최상의 맛과 영양분을 자랑하는 비빔밥처럼 하나로 뭉쳤을 때 그 진가가 돋보이는 사람들. 이들이 유보연 사주의 '팀 스토리' 신청으로 사무실이 아닌 대학로 연극 공연장에서 마주했다. 서로에 대한 호감과 신뢰까지 결들여져 더욱 훈훈했던 연극 관람기를 옮겨본다.

글 기사윤 사진 맹석호



덕장의 리더십으로 복돋운 팀워크

강서지점 사우들은 주저 없이 강서지점을 서울지사의 선봉 지점이라고 말한다.

항상 목표를 상회하는 매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탁월한 영업력의 비결은 팀워크에 있다. 흔히 영업이라고 하면 '각개전투'가 연상되겠지만, 강서지점의 사우들의 답변은 "아니요"다.

"매일 15분 동안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굿모닝 미팅'이라고 부르는 회의를 해요. 하루를 상쾌하게 열자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거래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자연스럽게 업무 관련 고충도 꺼내놓고 이에 대한 조언이 오고 갑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맞닥뜨리기가 부지기수. 김진식 지점장은 "각자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 대한 위로이자 응원"이라며,



이는 구성원 각각의 고른 영업력 상승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팀원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은 지점장님 덕분이지요. 권위적인 상사라기보다는 듬직한 친형님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스스럼없이 다가와 힘든 일은 없는지 묻고 용기를 북돋워주시곤 합니다."

문진혁 대리는 김진식 지점장을 가리켜 '덕장의 리더'라고 했다. 이른바 '덕(德)'으로 팀원들을 통솔한다는 것. 김진식 지점장은 "우리 팀에는 소위 구멍이 없다. 맡은 업무 이상으로 일 처리를 한다"고 화답한다.

어느덧 분위기는 서로에 대한 외모 칭찬(?)으로 이어졌고 "인상도 좋은데 똑똑해 보이기까지 한다", "푸근한 외모가 영업의 장점이다" 등의 말이 오고 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선이 집중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홍일점 이선미 사우다. 작년 8월에 입사했는데, 밝은 미소로 지점을 환히 밝히는 것뿐 아니라 똑똑하고 아무진 일 처리가 일품이란다.

강서지점이 현재 인원의 '완전체'로 꾸려진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김진식 지점장 또한 2014년 7월에 부임했다. 함께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강서지점 사우들. 강서지점이라는 울타리에 있는 동안 언제나 지금처럼 서로를 아끼며 격려할 것이라.

연극은 환한 웃음과 따뜻한 정을 싣고

서로에 대한 칭찬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연극 시작 시간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함께 얼굴을 보고 식사를 하며 팀워크를 다지는 것은 노상 있는 일이지만, 오늘처럼 연극 관람으로 팀 모임을 갖는 것은 처음 있는 일. 매표소 앞에서 표를 나눠 가지는 사우들의 표정이 한껏 들떠 있다. 사우들이 보기로 한 연극은 〈쉬어매드니스〉. 연극에 대한 정보를 미리 살피지 않고 온 사우들은 연극이 어떤 내용일지 무척 궁금하단다. 연극은 총 1막과 2막으로 나뉘어 있는데 1막은 쉬어매드니스라는 미용실의 시골벽적이고 분주한 일상적인 풍경이다. 미용실 위층에서 유명 피아니스트 ‘바이엘 하’가 살해되며 1막이 끝난다. 2막의 시작과 함께 관객들의 자리에 불이 켜지고 손님으로 가장해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은 미용실에 있던 네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취조를 시작한다. 용의자는 쉬어매드니스의

미용사인 조지와 수지, 사건 발생 시간에 미용실에 있던 의문의 남자 오준수와 미용실의 단골 한보현으로 압축된다. 심문 과정에서 배우들은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완벽하고 치밀한 알리바이를 내세운다. 관객들이 목격자가 되어 직접 범인을 지목하고 용의자를 심문하여, 단서를 찾아내게 하고 투표를 통해 범인이 결정된다. 빠르게 진행되는 즉흥극이다 보니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연극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 단 하루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이 공연의 특징. 형사의 질문에 객석에서 살인 사건에 단서가 될 목격담이 쏟아져 나온다. 엉뚱한 답변이 나와 한바탕 폭소가 이어지기도 한다. 여섯 명의 사우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다. 유보연 사우는 범인이 ‘오준수’라는 결정적 목격담을 제시해 좌중의 탄성을 자아냈다.

매일매일 환한 웃음으로 서로를 마주하는 강서지점 사우들. 오늘 이 시간은 강서지점의 특별한 또 하나의 추억이 되어 오래도록 회자될 것임이 분명하다.



또 하나의 추억을 선사한 연극 관람 회식

유보연 사우의 추측대로 범인은 ‘오준수’로 결정되며 연극은 막을 내렸다. 연극이 끝난 후 사우들에게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배우들과의 기념 촬영이 허락된 것. 사우들은 오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 배우들에게 아낌없는 갈채를 보냈다. “연극을 보기 전 설레기도 했지만 지루하면 어떡할까 내심 걱정도 했지요. 업무를 마치고 보는 연극이라 줄음이 몰려올까 봐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고, 내용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조금 특별했던 오늘 회식, 대만족입니다.” 연극을 태어나 처음 본다는 박재운 사우. 이번 회식을 계기로 연극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동료들과 종종 이런 자리를 갖고 싶단다. 5년 만에 연극을 보게 됐다는 정석환 사우도 마찬가지다. “정말 재미있고 이색적인 회식이었어요. 뒤풀이에서 오늘 본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 같아요. 화제거리가 더욱 풍부해지니 그만큼 정도 더욱 돈독해지겠죠?” 매일매일 환한 웃음으로 서로를 마주하는 강서지점 사우들. 오늘 이 시간은 강서지점의 특별한 또 하나의 추억이 되어 오래도록 회자될 것임이 분명하다.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범인을 추리하느라 과도한 열량을 소모한 탓에 사우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온다. 본격적인 이야기보따리를 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사우들의 얼굴이 환한 웃음으로 가득하다.㉞

연구기획팀 김재영·김옥재 사우의 스릴 만점 레포트 ‘나무 사이를 날아라~’

대구 가창면에 위치한 힐크레스트에 들어서자 상쾌한 공기가 온몸을 감싼다. 김재영 연구원은 작년 가을부터 팀원들과의 사보 활동을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으나, 팀이 워낙 바쁜 탓에 후배와 단둘이 ‘멘토 앤 멘티’ 즐기기에 나섰다. 숨 가쁘게 일하던 연구실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싱그러운 나무숲에 둘러싸여 있으니 절로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이다.

글 이진우 사진 이용관

나무 사이로~ 와이어 타고~ ♪

쌀쌀한 바람에 입김이 마구 나오던 어느 날 아침, 힐크레스트 입구에서 연구기획팀 김재영 주임연구원, 김옥재 연구원을 만났다. 외투도, 목도리도 없이 티셔츠만 입은 채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에 깜짝 놀라자, 체험을 시작하면 땀이 많이 날 것 같아 미리 벗어두었다며 허허 웃는다. 코끝은 점점 빨개지지만 한껏 기대감을 머금은 그들의 표정에 지체 없이 체험장으로 향했다. 오늘 체험할 ‘에코어드벤처’는 나무 사이를 연결한 와이어, 목재 구조물, 로프를 이용해 땅에 발을 딛지 않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동하며 즐기는 레포츠다. 집라인(Zipline)을 타고, 이리저리 움직여 중심 잡기 힘든 통나무를 건너는 등 24가지 게임을 통해 총 612m 거리를 이동한다. 높은 곳에서 줄 하나에 의지해 움직여야 하니 안전 장비 착용은 필수. 단단히 묶인 장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무 위 플랫폼을 향해 암벽을 오른다. 먼저 오르기 시작한 김재영 사우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제법 가파른 각도에 손에 힘이 팍, ‘괜히 했나’ 싶은 표정이 살짝 스쳤지만 다시 차분히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한다. 김재영 사우가 오를 땐 김옥재 사우가, 김옥재 사우가 오를 땐 김재영 사우가 줄을 당겨주며 생명 지킴이

파트너십을 심분 발휘한다. 공중 계단을 건너 집라인 앞에 선 두 사람. 약간 긴장한 듯했지만 이내 외줄 타고 하늘을 날며 속도를 즐긴다. “우와~ 생각보다 빠르네요. 조금 무섭긴 했지만 재미있어요. 탈 만합니다.” 한 코스 한 코스 클리어할 때마다 이마에, 등골에 땀이 송송 맺힌다. 김재영 사우가 공중에 매달린 원통 구조물에 발을 올리는 순간, “으아악~” 마치 그네처럼 움직이는 구조물 위에서 휘청거린다. 다리 짹~짹 찢어가며 마침내 클리어. 그는 뒤이어 출발을 준비하는 김옥재 사우에게 크게 외친다. “이거 중심 잡기 힘들어! 양쪽 줄 잘 잡고 천천히 한 발씩 건너!” 앞서간 선배의 코치에 따라 김옥재 사우가 조심스레 걸음을 옮긴다. 처음엔 버벅거리나 싶더니 이내 안정을 찾는다. 선배가 건너는 모습을 보고, 일러주는 대로 따라 하니 훨씬 수월하단다. 앞서간 김재영 사우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을 후배에게 가르쳐주고, 그 노하우를 배운 김옥재 사우는 선배를 따라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걸 보니 사무실에서도 이 두 사람,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다.



언제까지나 늘 고마운 선배, 든든한 후배이기를

“선배는 같이 있을 때마다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아요. 업무적인 면도 그렇지만 사회생활하는 데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김재영·김옥재 사우가 근무하는 연구기획팀은 연구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고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이들이 소속된 제품기획파트에서는 현재 어떤 제품군에 어떠한 제품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제반 정보를 분석해 기획을 제안한다고. “김옥재 연구원과는 하루에 세 시간 이상씩 부딪치며 일하는 편이에요. 다른 직원들과는 한 시간도 얘기하기 힘든데. 그러니 더 돈독할 수밖에 없지요.” 첫인상은 차가웠지만 업무를 프로페셔널하게 처리하는 선배를 보고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는 김옥재 사우. 업무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사람 대하는 법, 연애에 필요한 팁까지 “선배 만나 내가 달라졌다”며 그가 말을 잇는다. “원래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취미는 혼자 방에서 기타

앞으로도 이 두 사람, 서로에게 늘 든든한 선배와 노력하는 후배이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치기, 운동도 혼자서 헬스 하고요. 입사하고 얼마간은 사람 대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선배의 조언 덕에 많이 바뀌었죠. 이제 다른 부서 분들에게도 먼저 다가가고 클라이밍 동호회 활동도 한다니까요.” 자신이 겪으며 깨달은 것들을 후배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는 김재영 사우. 얘기를 듣고 있자니 휘청거리던 후배의 손을 잡아끌던 김재영 사주의 모습이 다시금 떠오른다. “저도 선배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제가 안 해본 걸 후배에게 시킬 순 없잖아요. 내가 먼저 겪어보고 힘든 부분을 조언해주면 최소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후배가 덜 힘들니까. 제가 선배들에게 받은 많은 것들, 차근히 물려줘야죠.” 제품 기획, 특히 관련해서 더욱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다는 김재영 사우와 그런 김재영 사주를 더 닮고 싶다는 김옥재 사우. 이번 신년호엔 특히나 ‘멘토 앤 멘티’ 코너에 꼭 맞는 사우들과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뿌듯하다. 앞으로도 이 두 사람, 서로에게 늘 든든한 선배와 노력하는 후배이길 진심으로 응원한다.㉞

PCR파트 안현인 사우 가족 나들이

동물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교감!

사보팀에 날아온 독자엽서 한 장. PCR파트 안현인 사우의 아내 임주희 씨가 보낸 엽서에는 두 살, 세 살 난 아이들과 아빠가 함께할 시간을 마련하고 싶은 아내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이 단란한 가족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기로 했다.

글 이진우 사진 이용관 촬영협조 주령주령 해운대점

사막여우 ‘주디’, 코아티 ‘코코’를 만나요

“아빠~ 여기! 여기!”

오랜만에 나선 아빠와의 나들이에 신이 난 영광이와 예진이. 오늘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실내 동물원 ‘주령주령’에서 새로운 동물 친구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아빠에게서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지 품에 꼭 안긴 영광이가 “요기! 조기! 우와~” 하며

친구들을 찾아 나선다. 처음 만난 친구는 사막여우 ‘주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이 따뜻한지 꾸벅꾸벅 조는 중이다. 프레리도그 ‘레디’, 스컹크 ‘페브리즈’를 차례로 만나다 보니 마침 코아티 ‘코코’가 밥 먹을 시간이다. 영광이가 사육사 선생님에게 받은 먹이를 쥐고는 조심스레 코코에게 손을

내민다. 쿵쿵대며 받아먹는 코코가 신기한지 영광이의 눈이 동그래지자 옆에서 지켜보던 예진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린다.

“이 친구는 비어디드 드래곤, 가을이라고 해요. 쓰다듬어줄까요?”

파충류라 조금 무서워하지 않을까 싶던 것도 잠시, 영광이와 예진이가 “아이 예빠~” 하며 가을이를 쓰다듬는다. 부드러운 배를 만져보고는 예진이가 엄마를 보며 배시시 웃는다.

“동물을 가까이서 보고, 직접 쓰다듬으면서 아이들이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보살피는 친구 같은 느낌이라구요.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만지는 걸 보니 생명 소중한 걸 알아가는 것 같네요.”

주령주령 경주 보문점에 이어 오늘 해운대점이 두 번째 방문이지만, 지점마다

거북이랑
같이 찰칵!



색다르게 구성된 섹션,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들도, 안현인 사우 부부도 새로운
기분으로 즐기는 중이다.
다른 동물 친구들을 만나보겠다며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두 아이. 영광이가 가는 곳이면
예진이도 아장아장 따라가기 바쁘다.
“우리 애들이 또래보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뭐 저희 부부를
닮은 거겠죠?”
족구 선수 출신 아빠와 사회체육을 전공한
태권도 유단자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아이들의 체력은 날 때부터 100% 충전 상태.
덕분에 엄마, 아빠는 힘들다 힘들어~

**연인처럼, 친구처럼,
언제나 행복한 우리 부부**

이 부부가 처음 만난 건 8년 전, 어느 족구
동호회에서였다. 안현인 사우가 활동하던
동호회에 주희 씨가 찾아온 것. 그렇게
오랫동안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 1년을
연애하고 2012년 결혼에 골인했다.
“저는 양산에, 아내는 상주에 살아서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어느 날은 뽀빠로데이라고
아내가 저 몰래 저희 집에 뽀빠로를 두고
갔더라고요. 과자 주겠다고 왕복 다섯
시간을 운전한 거죠. 아내는 제게 감동을

※정정합니다.
지난 가을호 'N Hero'에서 최상현 사우 아내가
'이루다 씨'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이루다 씨'로 정정합니다.

평소 아이들을 혼자 돌봐야
하는 주희 씨가 안쓰러웠던
안현인 사우에게 오늘은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행복한 날이 됐다.

주고 싶어 그렇게 한 건데, 얼굴도 못 보고
가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 일이 저한테는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더 결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하.”
당시 아쉬웠던 마음이 똑똑 묻어나는
남편의 말에 “운전하는 거 좋아해서
괜찮았어요!”라며 웃던 주희 씨.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눈을 맞추던 부부에게서 연인
같은, 친구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긴다.
“둘 다 볼링 치는 걸 좋아해서 볼링장에
참 많이 다녔어요. 첫째 만삭 때까지 치러
다녔는데 아이 낳고 둘째까지 연년생으로
낳다 보니 아내는 한참 동안 못 갔네요.”
동료들과 볼링장에 갈 때면 아내가
생각난다는 안현인 사우. 평소 아이들을
혼자 돌봐야 하는 주희 씨가 안쓰러웠던
그에게 오늘은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더욱 행복한 날이 됐다.
“아내에게 늘 고맙지요. 이렇게 잘 맞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내 덕에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요.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¹⁹

Info 주렁주렁 해운대점
위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13
NC백화점 12층
문의 1644-2153
(롯데빅마켓 킨텍스점·경주
보문점 운영 중, 하남점 오픈 예정)





깔끔·꼼꼼·친절!

타이어테크 부산대교점

2015년 1월에 오픈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타이어테크 부산대교점. 꼼꼼한 수리 방식과 친절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중이다.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무장한 세 사나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타이어테크 부산대교점으로 가보자.

글 김아람 사진 이용관



대표 이수철

“남들과 똑같이 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성실히 대리점을 이끅니다!”

점장 김지현

“항상 웃으며 재미있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최선을 다합니다.”

과장 김윤섭

“나는 다쳐도 고객은 다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이수철 대표 : 안녕하세요!

2015년 1월에 오픈한 타이어테크 부산대교점을 운영하는 이수철 대표입니다. 저희 타이어테크 부산대교점은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김지현 점장 : 매일 아침 출근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어요.

저희 대리점의 강점인 깨끗한 시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죠.



김윤섭 과장 : 아무래도 정비 후에는 주변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 바로 청소하고, 수시로 정리 정돈합니다. 3명 다 깔끔한 성격이에요!





와~ 정말
세심하게
수리하는구나~!



이수철 대표 : 타이어 정비는
많은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내 가족의
차를 고친다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점검합니다.

김지현 점장 : 타이어에 철심이
박힌지 모르고 공기압을
체크하러 온 고객이 있었어요. 확인
후 위험 요소를 보여드리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고객이
많아 늘 꼼꼼히 체크합니다.

김윤섭 과장 : 고객이 차를
계획적으로 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고객 차의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연식은 어떻게
되는지, 제품을 장착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이수철 대표 : 이런 저희들의
노력을 고객들이 알아주셨는지
2014년에는 영도 지역 M/S 27%였는데
2015년에는 M/S 60%로 올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수철 대표 : 타이어테크
부산대교점은 정비만 하고
끝이 아니라, 고객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친절함 서비스에도 중점을
둡니다. 타이어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드리고 고객의 차에 더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드리기도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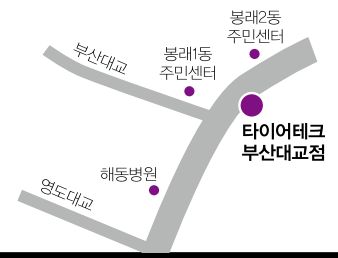
김지현 점장 : 저는 15년 차
전문가로서 타이어를 볼 때
연식을 중점적으로 보고, 타이어의 갈라진
부분을 면밀히 살핍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에 맞는 제안을 해드리죠. 그래서인지
이제는 단골 고객도 많이 생겼습니다.

김윤섭 과장 : 오픈 후 첫
손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SUV 타이어를 사러 오셨는데, 더
적합한 다른 제품을 추천해드렸어요.
만족하셨는지 그 뒤로 엔진오일 교환부터
정비까지 모든 것을 저희 대리점에
맡기시더라고요.

이수철 대표 : 올해는 단골
고객도, 매출도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이어테크 부산대교점, 저희
셋이 더 열심히 꾸려나가겠습니다! ㄹ



올 때마다 정말
체증이 쏙 내려가는
듯해요. 최고!



주소 부산 영도구 봉래동3가 79-1
문의 051-418-8876

운전하며 알아야 할 필수 상식!

Driving Quiz

Quiz 1

하이패스 차량 통과 시,
30km/h 이상으로 과속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or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Answer

범칙금을 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하이패스 구간 제한속도인 30km/h에서
20km/h 이하로 초과 시 범칙금 3만 원,
20km/h~40km/h 초과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40km/h~60km/h 초과 시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
60km/h 초과 시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Quiz 2

정지선 위반 단속의
기준은 앞바퀴다.
아니다?

Answer

아니다

정지선 위반 단속의 기준은 '앞범퍼'입니다.
정지선 위반 단속 시 자동차의 앞바퀴가
아닌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 경고나 질서 협조 요청서를
발부하는 등 계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만 잘하면 된다? No!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크고
작은 법규를 알아야 언제
어디서나 당황하지 않고
안전적인 드라이빙을 할 수
있다.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생활 속에서 헛갈리기 쉬운
드라이브 상식을 알아보고
베스트 드라이버로 거듭나자.

정리 이진우 자료협조 넥센타이어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exentire.korea)

평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자동차 운전 상식.
드라이빙 퀴즈를 통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세요!

Answer

위법이 아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를 보호 장비 없이 태우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만 6세 미만의
아이를 자동차에 태울 때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의무적으로 12세(만
10세)까지 카시트를 사용하도록 정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규제가 없더라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 보호 장비는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Quiz 3

만 10세 이하 어린이를 보호
장비 없이 자동차에 태우는
건 위법이다. 아니다?

Answer

물어야 한다

신호 위반은 무조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긴급차량이 접근할 시 주변 차량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정지선을 넘는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추후에
운전자가 이의신청하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Quiz 4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 신호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Answer

정원 초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뒷자리 안전벨트 착용을 위해
13세 미만 아동도 성인과 똑같은 1인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택시의 탑승 인원은 나이에 상관없이 운전자 포함
총 5명으로 제한하므로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①

Quiz 5

일반 택시에 어른 2명과
13세 미만 아동 3명이 타면
정원 초과다. 아니다?

NEXEN ROAD

고속도로를 달리다

지금 오르막을 걸으며
숨이 차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
그 언젠가 펼쳐질 탄탄대로 때문일 것입니다.
내 앞에 주어진 각각의 단계와 과정을
성실히 수행할 때
눈앞에 고속도로가 곧게 펼쳐진다는 것,
비로소 질주의 쾌감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가 아닐까요.

넥센타이어가 여러분의 성공 가도를 응원하며
고속도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명심할 것은 고속도로에서의 방심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고속도로,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볼까요.

곧게 뻗은 탄탄대로 고속도로 이야기

고속도로에는 인간의 직선적인 욕망이 담겨 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리고 싶은 질주 본능, 누구보다 더 빨리 나아가고 싶은 승부사적 기질이 세상의 수많은 고속도로를 탄생시켰다. 은빛 고속도로 위를 흐르는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춰보았다.

글 권정미 자료협조 인천시 역사자료관, 부산시청 사진실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는?

속도제한이 없는 고속도로, 그래서 운전자라면 누구든 한 번쯤 달려보고 싶은 꿈의 도로, 바로 독일의 아우토반(Autobahn)이다.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의 정식 명칭은 라이히스아우토반(Reichsautobahn)으로, 1932년에 쾰른과 본 사이를 연결한 후 6년 만에 3,000km에 이르는 고속도로망이 확충되었다.

아우토반 건설에 크게 공헌한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와 프리츠 토트다. 히틀러가 임명한 아우토반 건설의 총책임자 프리츠 토트는 직선 도로뿐만 아니라 곡선을 이용한 도로, 교량, 고가 디자인 등 도로에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세계 곳곳의 고속도로에 영향을 미쳤고, 독일이 자동차 강대국이 되는 발판이 되었다. 아우토반은 건설 후 제2차 세계대전에 전투기와 항공기의 활주로로 이용되었으며, 훗날 독일 F1 레이싱 자동차의 최고 속도 기록 측정에 활용되기도 했다.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는 아우토반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많은 사람이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라고 생각한다. 경부고속도로가 고속국도 제1호선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다.

경인고속도로가 완공된 시기는 1968년 12월이고,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7월에 완공되었다. 시기상으로 경인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보다 1년 9개월이나 앞선다. 그렇다면 경인고속도로가 제1호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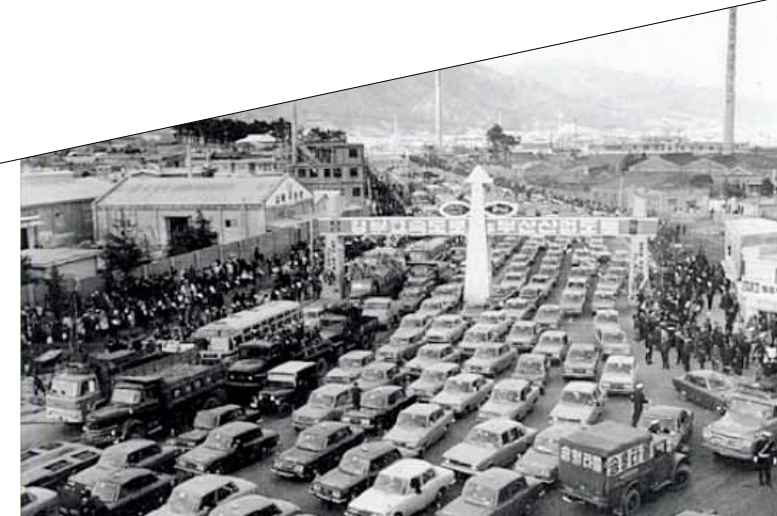
경부고속도로가 제1호선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나라 대표 고속도로이기 때문이지, 최초의 고속도로라는 의미는 아니다. 1981년, 고속국도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경부고속도로(당시 서울-부산선)를 제1호선으로, 경인고속도로(당시 서울-인천선)를 제2호선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완공된 고속도로는?

기공부터 준공까지, 불과 2년 5개월 만에 개통되어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고속도로는 바로 경부고속도로다. 서울-부산을 잇는 4차선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연장 428km, 노폭 22.4m의 도로로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던 1968년 2월 1일 역사적인 첫 삽을 떴다. 첨단 장비도, 도로 건설 경험도 부족하던 당시에 건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 밖에 없었다. 바로 공사 기간 단축. 단기간에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하기 위해 투입된 중장비는 1,900대였는데, 기존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중장비의 수가 총 1,400대였으니 얼마나 스케일이 큰 공사였는지 짐작이 된다.

추풍령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우리나라 재원과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 사람의 힘으로 세계 고속도로 건설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길”.



세계 최장 고속도로망을 구축한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망을 연결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2012년 말까지 고속도로 운행 길이 1위였던 미국을 제치며 자동차 인프라에 있어서 세계적인 면모를 과시했다. 최장 고속도로망을 갖춘 중국의 고속도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고속도로가 존재하지 않던 중국에서 최초로 개통된 것은 1988년 상하이에서 개통한 호가 고속도로, 그 후 베이징과 허베이성을 연결하는 징시고속도로가 개통됐지만 1993년까지 건설된 고속도로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92년 중국국가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5종 7형' 등의 계획을 시행하며 한 해 평균 약 6,000km 이상의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사막 고속도로 또한 중국에 있다.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뜻의 타클라마칸 사막, 그곳을 지나는 타림 사막 고속도로는 전체 길이가 552km다. 이 가운데 446km는 모래언덕으로만 이루어져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 4km 구간마다 직원이 상주한다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은빛 고속도로 위에는
재미있고도 다양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

고속도로 이용 시간에도 제한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머물 수 있는 최장 통행권의 유효 시간은 24시간이다. 24시간이 초과되면 최장거리 요금을 징수하는데, 휴게소에서 고장 수리를 했거나 휴게소 주차 증명서가 있으면 본 통행료만 납부해도 된다. 유효 시간이 정해진 이유는 순환 구간, 정상 유턴 구간 이용에 따른 통행료 면탈을 방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장기 주차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4시간의 유효 시간은 정상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충분한 휴식 시간과 운행 경로 등을 감안해 최장거리 요금을 각 고속도로 영업소마다 적용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왜 도로 소음이 심할까?

고속도로를 달리면 일반 도로에서 들을 수 없던 마찰음을 듣게 된다. 이는 단순히 자동차가 많아서, 주행 속도가 빨라서만은 아니다. 그 답은 고속도로를 만든 재료에 숨겨져 있다.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 포장에 사용되는 아스콘이 아닌 시멘트 기반의 콘크리트로 만든다. 콘크리트로 도로를 만들 경우 도로 내부의 빈틈이 모조리 메워져서 타이어의 노면 마찰음을 흡수하는 흡음성이 떨어진다. 소음이 심한데도 왜 고속도로는 콘크리트로 만드는 걸까? 이유는 도로 수명에 있다. 고속도로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40년 이상 버틸 수 있어 20년 내외인 아스콘 포장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오래가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번호를 보면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번호는 끝자리가 0 아니면 5로 표시된 경우가 많다. 이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영동고속도로(고속국도 제50호선)처럼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동쪽과 서쪽을, 중부내륙고속도로(고속국도 제45호선)처럼 끝자리가 5로 표시되어 있다면 남쪽과 북쪽을 잇는 고속도로다.

두 자리 숫자로 표시된 고속도로 번호에서 앞자리는 축을 뜻하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서쪽 혹은 남쪽에, 높을수록 동쪽 혹은 북쪽에 위치해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고속국도 제15호선, 남해고속도로는 제10호선이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해고속도로는 고속국도 제65호선으로 지정돼 있다. 이처럼 고속도로 번호를 살펴보면 해당 고속도로가 어느 축에, 어떤 방향으로 길이 나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⑩



들어봤나? 고속도로 미스터리

만약 땅이 무너진다면 어디로 솟아나야 하나?

최근 ‘싱크홀(sinkhole)’ 관련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싱크홀은 지표면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는 현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면 달리던 차 혹은 멀쩡히 서 있던 건물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꺼지게 된다.

2010년 6월 중국 저장성 고속도로에 지름 8m의 싱크홀이 생겨 대형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3년 4월 러시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도 지름 85m의 싱크홀이 발생해 건물 3채가 구멍에 빠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미국에서도 싱크홀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3년 4월 시카고 한 고속도로에서 지름 12m의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3대가 빨려 들어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싱크홀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겨졌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 종말의 전조’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그 원인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데, 도로 위 싱크홀의 가장 큰 이유는 개발 과정에서 과다한 지하수 이용으로 도로를 받쳐주는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이란단.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가리켜 우리는 ‘미스터리’라고 부른다. 보통 ‘누가 ~라고 하더라’ 식의 ‘카더라’ 통신이 많은데, 평균 100km/h의 자동차들이 뺑뺑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는 미스터리가 난무하기 마련. 이는 질주에 대한 욕망과 이에 대한 공포가 공존하는 인간 심리 자체가 미스터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글 기사윤

원혼(冤魂)은 구천(九泉)이 아닌 고속도로를 떠돌고

동서양을 막론해 고속도로와 관련해 가장 자주 들려오는 미스터리는 단연 ‘귀신(유령)’ 이야기다. 한참 길을 달리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거나 피범벅이 된 좀비들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홍콩의 ‘툰먼 고속도로’는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숨지는 장소로 악명 높은 곳인데, 대부분의 사고가 전방에 갑자기 나타난 피투성이의 처녀 귀신을 보고 급히 핸들을 꺾는 경우란다. 귀신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수백 명이 넘었다고, 심지어 1998년 이 처녀 귀신이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다. 도로관리청은 이 영혼을 달래기 위해 위령제를 지냈지만 지금까지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 텍사스 주 ‘마파 시 56번 고속도로’ 남쪽에는 도깨비불이 떼로 출몰해 운전자에게 달려든다고 한다. 이 장소는 1800년대 미국 원주민(인디언)들이 기병대에게 전멸된 곳으로, 사람들은 이 도깨비불을 인디언들의 원혼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독 그 고속도로는 ‘죽음의 도로’라고 불릴까?

각 나라에는 ‘죽음의 도로’라고 불리는 고속도로가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는 ‘88올림픽고속도로’가 있고, 중국에는 ‘팔달령 고속도로’가 있다. 88올림픽고속도로는 대구와 광주를 최단거리로 연결한 고속도로로 국내 유일의 왕복 2차로다. 곡선 구간이 많은 데다 중앙분리대가 없어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12월 4차선 확장 공사가 완료돼 곧 오명을 벗을 예정이다.

거대한 땅덩이만큼 중국에는 열 손가락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죽음의 도로’가 많다. 그중 하나인 팔달령 고속공로는 베이징과 장가구 구간을 연결하는 곳으로, 사고는 팔달령 장성으로부터 베이징 방향 5km 지점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개통 4년 만에 발생한 부상자는 62명, 사망자는 49명으로 1km 구간에서만 10명이 숨진 꼴이다. 어느 특정 지점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미스터리하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콰줄루와 나탈을 잇는 고속도로 또한 죽음의 도로라 불리는 곳이다. 매년 12월 연말축제기간에 추돌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나타나는데, 원인은 운전부주의. 하지만 매년 12월 어김없이 5명만을 데려가는 도로, 정말 미스터리하다.

미스터리인 듯 아닌 듯 미스터리 같은 너!

달려도, 달려도 제자리인 기름만 잡아먹는 ‘미친 고속도로’를 기대했다면 실망이 클 수도.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공사 구간을 종종 대면했을 텐데, 이 구간이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보다 운전자에게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 미스터리하지 않은가. 두 개의 차선이 하나로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자동차 수용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진입로 뒤쪽 엉뚱한 줄에 서 있던 운전자들은 부랴부랴 차선을 바꾸려하고, 미리 차선을 바꾼 운전자들은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 사고에 이르게 되는 것. 고속도로에서 정체됐을 때, 터널을 지나면 정체가 조금은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또한 미스터리하다. 터널 속의 차들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말이다. 터널 안에서는 차량 속도를 속도계를 통해 바로 눈앞에서 확인하는 반면,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시야가 넓어져 정체가 해소된 것과 같은 착시를 느끼는 것. 차량이 정체될 때 옆 차선 차가 더 빠르게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의 착시다. 고속도로에서 미스터리인 듯 아닌 미스터리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배려 운전은 기본! 조금한 마음은 내려놓아야 하겠다.📞

© 마장프리미엄휴게소



휴게소에서 아울렛 쇼핑을~

마장프리미엄휴게소

마장프리미엄휴게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2만7,491㎡의 휴게소로 압도적 규모를 자랑한다. 든든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푸드 코트에서는 한식, 일식, 중식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디저트와 패스트푸드의 종류도 다양하다. 쇼핑 아울렛이 갖춰져 있어, 아웃도어 및 캐주얼 의류를 구매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하트포토존, 풍차포토존, 벚꽃계단, 중앙광장 등의 테마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노선 중부선(양방향)

주소 경기 이천시 마장면 목리산 13-32

금강을 만끽할 수 있는 곳

금강휴게소

금강휴게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하행 동시 진입과 출발이 가능한 곳으로, 아름다운 금강 조망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곳이다. 금강을 따라 데크 산책로가 펼쳐져 있어, 탁 트인 강과 산의 경치를 바라보며 피로를 풀 수 있다. 낚시대와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어 일부러 휴게소를 찾는 이들도 많다. 금강을 좀 더 가까이에서 감상하고 싶다면 휴게소와 이어져 있는 금강유원지에 들러도 좋다. 여름에는 수상스키, 오리배, 바나나보트, 땅콩보트, 모터보트 등 각종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겨울 금강유원지에서 맛보는 빠가사리 매운탕은 가히 일품이라 할 만하다.

노선 경부선(양방향)

주소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로 596

© 금강휴게소



© 황성휴게소



© 황성휴게소

휴게소에서 즐기는 스테이크 맛은?

황성휴게소

스테이크 하나만으로 유명세를 얻은 곳, 바로 황성휴게소이다. 황성휴게소의 대표 메뉴는 '한우떡 더덕스테이크'. 1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을뿐더러, 황성 한우를 재료로 해 그 맛도 일품이다.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며, 현장 주문 시 기본 30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고, 스테이크뿐 아니라 한우국밥, 황성더덕 한우탕 등 다양한 메뉴를 만나볼 수 있는 까닭에 한우 마니아라면 들러볼 만하다. 배를 든든히 채웠으면 메타세콰이아 심터로 발걸음을 옮겨볼 일. 메타세콰이아 숲길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

노선 영동선(강릉 방향)

주소 강원 황성군 안흥면 소사리 1530-2



© 현풍휴게소

500년 당산나무에 소원을 빌어봐!

현풍휴게소

마을 지킴이로 신격화하여 '모셔지'는 나무를 일컬어 '당산나무'라고 한다. 현풍휴게소에는 500년 된 당산나무인 느티나무가 있다. 이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500년 느티나무 이야기'라는 테마 공원이 꾸며져 있다. 공원에는 느티나무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마을 전설을 배경으로, 소원을 써 넣는 '소원 우체통'과 '소원 리본'이 조성되어 있다.

노선 중부내륙지선(현풍 방향)

주소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286

© 덕평자연휴게소



“여기가 휴게소야? 수목원이야!”

덕평자연휴게소

덕평자연휴게소는 그 모습이 수려해 각종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애용되는 곳이기도 하다. 휴게소의 콘셉트는 '에코', 그 이름에 걸맞게 덕평자연휴게소에 빼곡하게 들어선 자작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사이를 거니노라면 몸도 마음도 맑아지는 기분이다. 이 밖에도 허브 식물의 향연이 펼쳐지는 '보태닉힐스',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달려라코코' 등의 테마 존이 구성되어 있다. 소핑물은 물론 여러 예술품과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어 나들이 장소라 하여도 손색이 없겠다.⑩

노선 영동선(양방향)

주소 경기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 154번길

트로트계의 아이돌, 고속도로를 주름잡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입소문만으로 앨범 판매 150만 장을 돌파한 가수가 있다.
바로 '하이웨이 퀸'으로 불리며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금잔디.
눈앞에 펼쳐진 탄탄대로 이면에 감춰진 그녀의 '돌리고 꺾고 살리는' 트로트 인생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유수진 사진 맹석호 자료협조 KBS

고속도로 여왕? 트로트의 여왕!

늦가을 청담동 호젓한 카페에서 만난 금잔디는 얼굴도, 체구도 작은 편이었다. 저 작은 체구로 어떻게 폭발적인 가창력과 카리스마를 뽐어내는지, 에너지 넘쳐 보이는 그녀였지만 정작 본인은 요즘처럼 바쁘고 정신없는 때도 없다고 했다. KBS <가속을 지켜라> OST 앨범의 '초롱새' 홍보 활동과 더불어 행사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닌다는 것. 이동하며 쪽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무대와 관객이 주는 기쁨에 피곤함은 저만치 달아난다. 몸이 아파도 본인의 노래를 들으며 힘을 얻는 팬들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든다고.

“말기 암 치료 중이던 분이었어요. 병원에서 우연히 제 공연을 보시고는 제가 가는 곳마다 응원하러 오실 정도로 좋아해주셨죠. 제 노래가 생활의 활력소가

트로트 가수 금잔디

되었는지 감사하게도 3개월 정도 지나면서 호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결국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제 무대에 자부심도 느끼게 되었고요.”

이미 금잔디 팬카페 '잔디랑'의 회원 수는 8,0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열혈 팬이 강원, 부산, 대구, 광주 할 것 없이 쫓아다닌다. 이토록 열렬한 팬들의 사랑이 시작된 데는 2010년 발표해 150만 장이나 판매된 '트로트 메들리' 공이 컸다. “주요 구매층은 음원 다운로드에 익숙

지 않은 관광버스나 화물차 운전기사님들이예요. 기존의 곡을 제 스타일로 재해석해 부른 것이 그분들 입맛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메들리 가수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 노래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고속도로에서 시작된 인기는 공중파 방송 출연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KBS <불후의 명곡> 트로트 특집 편은 그녀를 하이웨이 퀸에서 트로트 퀸으로 거듭나게 해준 기회였다.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심금을 울리는가 하면 엉덩이가 들쭉거릴 정도로 흥까지 돋운, 그야말로 '트로트란 이런 것이다'를 제대로 보여준 무대였다. 한(恨)과 흥(興)을 한껏 실어 부른 '울고 넘는 박달재'로 그녀는 트로트 퀸으로서의 존재감을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굽이굽이 써 내려간 10년의 무명 생활

금잔디의 프로필상 정식 데뷔는 1999년이다. 그러나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2010년경. 어림잡아 10년의 무명 생활을 보낸 셈이다.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대표로 노래 대회에 나갔다 학장의 눈에 띄어 낸 것이 첫 앨범이었다. 아무것도 모를 때라 활동도 못해보고 혼자만의 기념 앨범으로 남았다고. 그 뒤 무대에서 대중을 웃고 울릴 수 있는 퍼포먼스를 펼치겠다는 목표로 동덕여대 방송연예과에 편입했다. 돈도 벌고, 빨리 무대 경험을 쌓고 싶던 그녀의 선택은 유흥업소 밤무대. 아침엔 학교, 밤에는 낯은 중고차를 끌고 다니며 서울 전역 여덟 군데 업소를 홀로 뛰었다.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도 충당했으니 마냥 행복했단다.

가창력, 외모, 화려한 무대 매너까지 겸비했다는 소문이 나면서 금잔디는 2000년, 첫 기획사를 만났다. 하지만 기획사는 방송 출연을 이유로 밤무대 행사를 그만두게 하고 방송 출연은커녕 음반도 내주지 않았다. 월세 보증금은 사라졌고, 라면으로 세끼를 때우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런 와중에 지금의 기획사 대표를 만났다.

“대표님이 트로트 가수 매니지먼트를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 트로트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멋진 노래를
선보이겠습니다.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저를 찾아왔다 하시더라고요. 전 이미 몇 번이나 사기를 당한 터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데 정통 트로트 가수에 대한 대표님의 철학과 기획이 저와 정말 잘 통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돈은 못 벌어도 끝까지 믿고 갈 수 있겠다 싶어서 함께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금잔디와 대표, 금목걸이를 팔아 금잔디의 월세를 대신 지불했다는 첫 소속사의 매니저까지, 세 사람이 뭉쳤다. 좋은 인연은 돈 주고도 살 수 없으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해보자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다. 다만 셋 다 워낙 가진 것이 없다 보니 음반은 꿈도 못 꿔다. 옥수수 하나로 이틀을 버티고, 두세 시간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다니는 등 눈물 없는 들을 수 없는 사연만 차곡차곡 쌓였다. 우여곡절 끝에 가수 겸 작곡가인 추가열에게 곡을 받아 앨범은 냈지만 궁핍한 생활은 쉬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도 노래는 알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열심히 뛰어다닌 3년이였다.



멈출 수 없는 정통 트로트 질주 본능

그녀가 데뷔 초, 세미트로트로 제2의 장운정이 되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훨씬 빨리 대중에게 알려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정통 트로트를 고수한 것은 그만의 확고한 트로트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恨)의 정서를 담는 것은 정통 트로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명맥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해 11월, 드디어 그녀는 정통 트로트 가수로 인정받으며 KBS 〈가요무대〉 30주년 무대에 주현미, 이미자, 문희옥 등 쟁쟁한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남들은 초등학교 때 꿈이 대통령이나 과학자였지만 저는 트로트 가수였어요.(웃음) 〈가요무대〉에 서는 게 소원이었죠.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웠습니다.”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멋진 히트곡을 선보이겠다는 당찬 포부도 내비쳤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노래

방에서 트로트를 맛깔나게 부를 수 있는 탑을 전했다.

“트로트는 그 가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노래 ‘오라버니’를 예로 들자면,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앙~!’ 내가 오라버니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말은 못하고 노래로 대신한다는, 부끄럽지만 애교스러운 감정을 담아 부르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벅센타이어 직원 여러분, 트로트 많이 애창해주세요!”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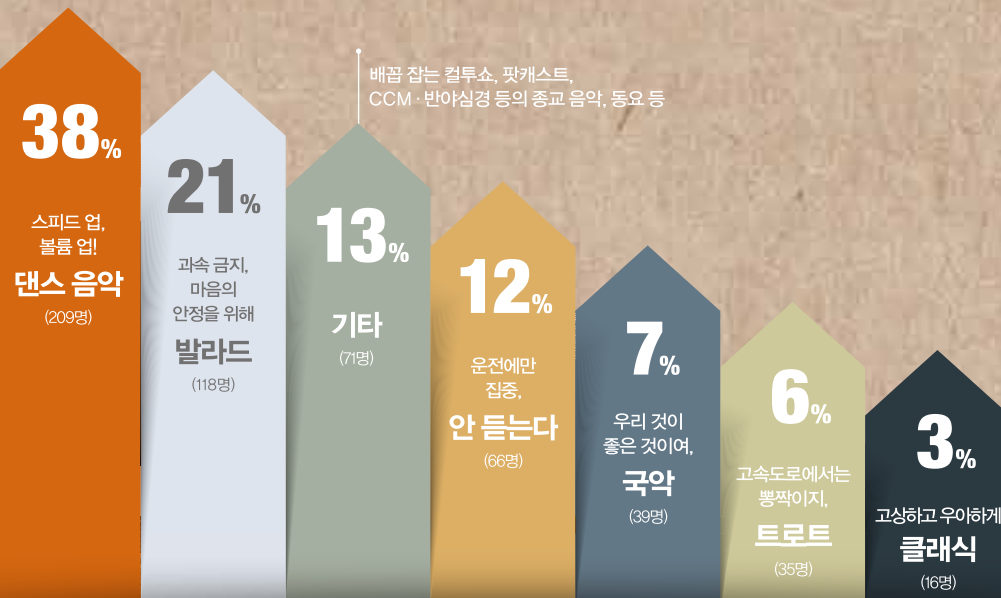


넥센인 앙케이트

당신의 고속도로는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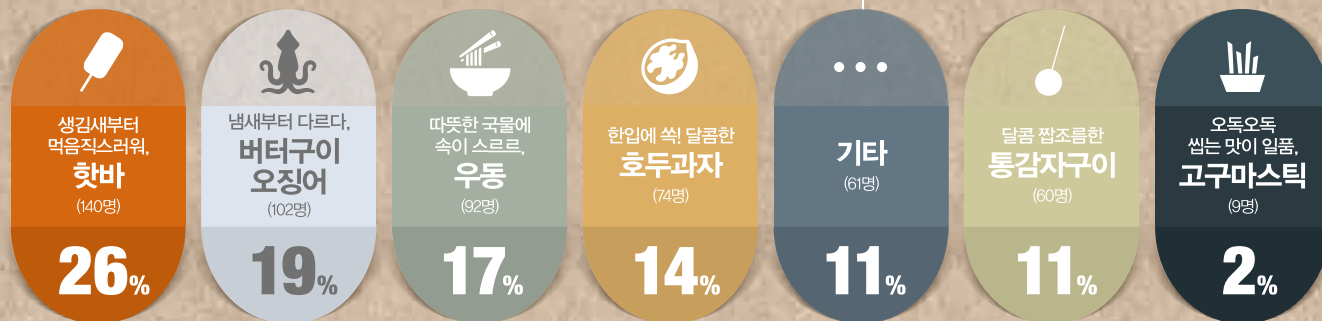
신나는 여행길, 설레는 귀성길, 긴장되는 출장길. 장거리 이동 때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도로 위에서의 짧지 않은 시간을 즐기는 넥센인만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리 이진우

고속도로를 달릴 때 나는 이 노래를 듣는다
(총 554명)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은 이게 최고! (총 538명)

압도적인 표를 차지한 소떡, 줄음 방지용 커피, 핫도그, 호떡, 라면에 김밥, 떡볶이, 쥐포 등 '소떡'이라 답해주신 김○○ 라장님, 큰일 납니다...



눈살 찌푸려지는 고속도로 꿀불건은?

(총 52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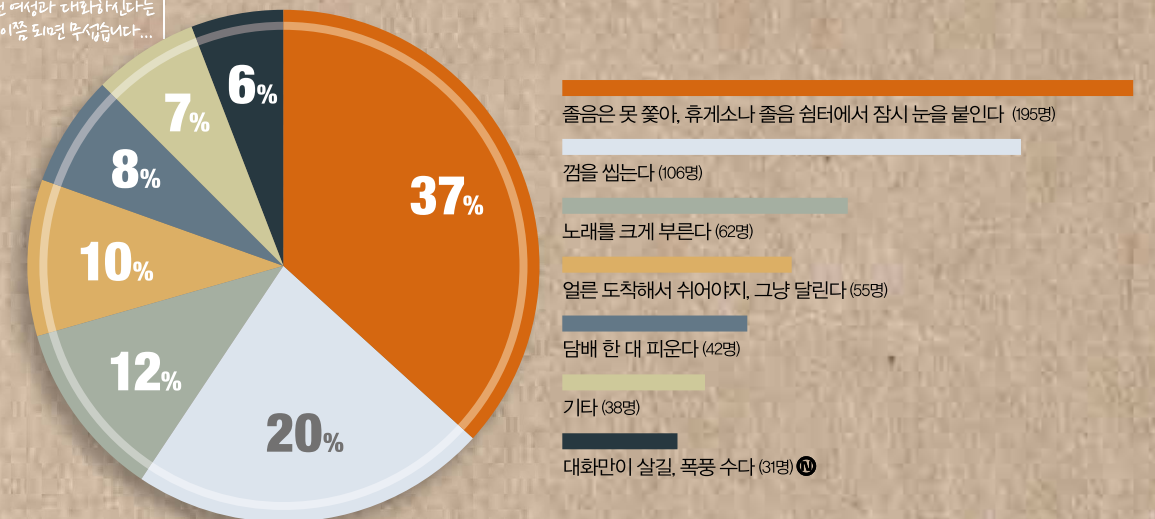


1차선 정속 주행자, 뒤에 바짝 붙어오는 운전자, 내 앞에서 앞차 다 끼워주는 운전자, 창문으로 담배공초 버리는 사람

줄음을 쫓기 위한 나만의 방법

(총 529명)

휴게소에서 폭풍 농구 게임, 창문 열고 바람 쐬기, 쉬지 않고 먹기 스스로 배탈을 떠낸다는 1인1일제 사육법, 본인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이호섭 사육법, 내비게이션 여성과 대화금지라는 박지광 라장님, 이쯤 되면 무섭습니다...



해안도로 타고 절경 만끽!

서해안의 진주, 전북 부안

조선 영조 때부터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 소문난 부안.
맛, 풍경, 이야기가 있다 하여
변산삼락(邊山三樂)이라고도
불린다. 특히 바다와 맞닿은
해안도로를 따라 변산반도를
즐기다 보면 명소가 눈에
쏙쏙 들어온다. 보물 가득한
부안으로 떠나보자.

글 / 사진 최혜진
자료협조 부안군 문화관광과

서울에서 부안으로 가는 길, 오랜 운전으로 몸이 찌뿌둥하다면 천안논산고속도로 탄천휴게소에 들러보자. 이곳에서는 조성 중 발견된 마한시대의 생활 유적 ‘공주 장선리 유적’과 경치 좋은 계룡산을 볼 수 있다. 또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호남고속도로를 타면 유독 이색적인 휴게소가 많다. 현대시조 문학의 거장 이병기 선생의 문학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산책길이 있는 여산휴게소, 전국 휴게소 맛집 특별 메뉴 부문 2위로 선정된 ‘녹두장군오리탕’으로 유명한 정읍녹두장군휴게소, 대나무 숲길을 거닐 수 있는 곡성휴게소 등이다. 또 부안 가는 길에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는 안면도, 계룡산, 대천해수욕장, 온양온천 등과 가까워 풍부한 주변 관광지를 자랑하니, 시간이 남는다면 관광지 한 군데 둘러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부산에서 출발할 경우 거치는 남해고속도로는 주변에 남해와 한려해상국립공원, 방어산국립공원이 있어 운전하는 내내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할 수 있다. 많은 여행객이 새만금방조제부터 변산반도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도 추천한다. 새만금방조제 덕에 부안 시내를 거치지 않아도 해안으로 진입 가능하고, 끝없이 뻗어나간 세계 최장 방조제를 거침없이 달리는 기분이 근사하기 때문이다. 또 방조제 너머 선유도, 신시도 등 바다에 펼쳐지는 고군산군도 풍광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빼어나다. 부안에 들어서면 인근에 바지락죽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변산반도 갯벌에 자생하는 신선한 자연산

바지락에 인삼, 녹두 등을 첨가하여 고소하고 담백한 바지락죽을 끓여낸다. 또한 채석강 부근의 백합죽도 인기다. 진한 백합 향이 그대로 남은 백합죽은 끝 맛이 깔끔해 다른 죽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별미다. 배를 채운 후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보석 같은 풍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부안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초미니 섬인 하섬을 비롯해 붉은 절벽이 절경을 이루는 적벽강, 수만 권의 책을 겹겹이 쌓아놓은 듯한 채석강이 해안을 따라 이어져 있다. 해안의 명소를 꼼꼼히 둘러보았다면 전나무숲길이 아름다운 내소사로 가보자. 하늘을 가릴 듯 울창하게 뻗은 전나무와 하얀 눈의 조화가 혼을 속 빼놓는다. 이 밖에도 맛있는 짓갈과 질 좋은 천일염으로 유명한 곰소항·곰소염전, 아이들과 청자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안청자박물관, 영화 <사도>를 촬영한 부안영상테마파크 등이 명소로 손꼽힌다. 1박 2일 여행 코스는 부안을 상·하부로 나눠 각각 하루씩 잡았다. 첫째 날에는 해안도로를 따라 적벽강, 채석강, 솔섬 등 백만 볼짜리 풍광을 만끽하는 게 포인트. 아이와 함께라면 잠깐 내륙으로 길을 돌려 부안누에타운에서 곤충 공부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다. 둘째 날에는 휘목미술관, 내소사, 곰소항·곰소염전, 부안청자박물관까지 부안 아래쪽에 위치한 명소를 차례로 훑어보자.



1st Day

변산반도 따라 달리는 낭만 드라이브

10:00 새만금 드라이브·새만금홍보관

바다 위의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새만금방조제는 애초부터 관광 도로의 기능을 고려해 양옆의 방조제보다 중앙의 길을 높게 설계했다. 도로 옆으로 확 트인 바다를 보며 드라이브를 하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제1호 방조제의 시작점에 이르면 새만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만금홍보관이 있다.

주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6

문의 063-584-6822

12:00 점심 : 변산명인바지락죽

새만금홍보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바지락죽 명인인 김순녀 씨가 운영하는 '변산명인바지락죽'이 있다. 변산고창 지역의 청정 갯벌에서 난 자연산 바지락에 6년 근 인삼과 녹두를 더해 고소하면서도 씹새래한 풍미가 일품이다.

주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794

문의 063-584-7171

13:20 부안누에타운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유유(遊儒)마을은 전국 유일의 '청정 누에타운 특구'로, 150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 누에마을이다. 이곳에서는 부안 누에, 세계 희귀 공충 등을 관람하고, 누에고치 공작물 만들기, 누에 비단실 뽑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관람료 3천 원 (4세 유아 이하 면제)

관람시간 3~10월 10:00~18:00 11~2월 10:00~17:00

주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산15-70

문의 063-580-4082 www.nuetown.go.kr

14:40 적벽강·채석강

붉은색 암반이 독특한 적벽강, 해식 단애가 수만 권의 책을 쌓아 올린 듯한 채석강, 둘은 멀지 않은 거리에서 변산반도의 절경을 이룬다. 각각 전라북도기념물 제29호와 제28호로 지정되어 있다. 부안에 가면 꼭 감상해야 할 볼물이다.

주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문의 063-582-7808 (변산반도국립공원)

16:00 부안영상테마파크

총 14만8,400㎡의 부지에 조선 중기 왕궁과 사대부가, 민가 등이 재현된 영화 촬영지이자 체험의 장이다. <왕의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 <사도> 등 술한 영화와 사극 드라마가 촬영된 이곳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관람료 어른 4천 원, 어린이 3천 원

관람시간 9:00부터 입장 가능(마감시간 월별 상이, 문의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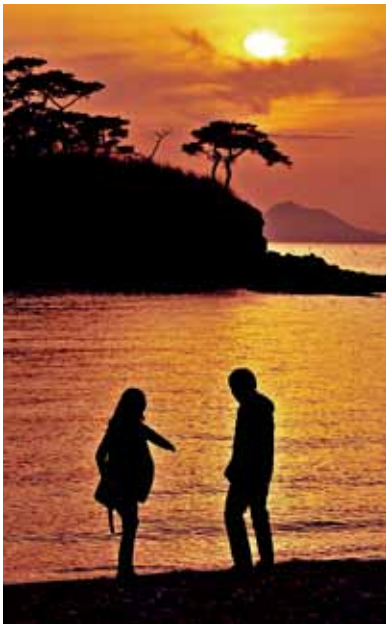
주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309-64

문의 063-583-0976 www.buanpark.com

17:30 솔섬 일몰

솔섬은 사진가들 사이에서 유명한 일몰 포인트이다. 작은 무인도 자체가 관광 명소가 된 것. 바다 위에 동동 뜬 솔섬이 붉은 태양을 아금아금 삼키는 풍광이 단연 압권이다.

주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2nd Day

겨울에 더 운치 있는 전나무숲길

9:00 내소사 전나무숲길

내소사는 633년(백제 무왕 34)에 해구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일주문에서부터 시작되는 600m의 전나무숲길 풍광이 빼어나기로 유명하다. 이른 아침 숲에서 내뿜는 싱그러운 기운을 만끽하며 산책로를 걸어보자. 숲길을 지나 내소사 천왕문으로 들어서면 천년 느티나무와 마주한다. 마을 입구 일주문 앞에 있는 700년 느티나무와 짝을 이뤄 각각 할머니·할아버지 당산나무로 불린다. 화려하게 꽃을 피운 대웅보전 꽃살문도 눈길을 끄는데, 우리나라 꽃살문 중 가장 오래되고 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문의 063-583-7281

11:00 휘목미술관

미술관, 야외조각공원, 갤러리, 아트카페, 펜션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아트센터. 6만여㎡의 잔디밭에서 현대 조각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아트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한잔 마셔도 좋겠다.

주소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길 10 미술관펜션

문의 010-9998-8887

12:30 점심 : 칠산꽃게장

부안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 알이 꽉 찬 5월 봄 꽃게를 급랭해 각종 한약재와 간장으로 알맞게 숙성해 깊은 맛을 낸다. 찢든찢든 씹히는 짭짤한 살맛도 일품이다.

주소 전북 부안군 진서면 청자로 906

문의 063-581-3470

13:30 곰소항·곰소염전

1808년 쓰인 <만기요람>에서는 부안을 만경, 옥구와 함께 대표적인 소금 생산지로 소개하고 있다. 부안 곰소염전은 1970년대만 해도 규모가 컸지만, 수입산 소금 개방 이후 규모가 차츰 줄어 이젠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곰소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은 쓴맛을 내는 염화마그네슘이 적고 미네랄이 풍부한 1등급 천일염으로 평가받는다. 이 질 좋은 천일염을 이용해 각종 해산물을 절인 것이 바로 곰소젓갈이다. 곰소항에는 각종 젓갈을 판매하는 젓갈 가게가 운집해 젓갈 쇼핑지로도 안성맞춤이다.

주소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15:20 부안청자박물관

11~14세기에 청자를 구웠던 고려시대 가마터 40여 곳 중 5기가 부안에서 발굴되었다. 부안이 강진 못지않은 청자 도요지였다는 증거. 전시동에 입장한 후, 2층 청자역사실, 청자명품실, 1층 청자제작실, 청자체험실 순으로 관람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고려청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유익하다. ㉠

관람료 어른 3천 원, 어린이 1천 원 (4D 영상 관람료 3천 원)

도자기 체험료 1호(1인 1회) 1만 원 (호수가 크면 5천 원 추가)

관람시간 3~10월 10:00~18:00, 11~2월 10:00~17:00

주소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798-4

문의 063-580-3964



자동차 필수 옵션

‘에어컨’ 쉽게 이해하기

에어컨이란?

우리가 흔히 에어컨이라 부르는 에어컨디셔너(Air Conditioner)는 말 그대로 공기 조건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에어컨이 없던 고대 로마인들은 집 안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 찬물이 외벽을 순환할 수 있는 수로를 설치하기도 했다. 미국 난방 냉동 공기조화 학회(ASHRAE :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에서는 사람이 느끼는 쾌적 범위를 나타내는 쾌적 선도를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온도나 습도에 따른 쾌적성은 물론이고, 온감, 생리반응 및 건강에 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쾌적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공기 조건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에어컨에 고마움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날씨가 더울 때는 물론이고 차 안에 습기가 가득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특히 그렇다.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라 생각해도 손색없는 에어컨에 대해 알아보자.
글 김남웅(실차명가팀)

에어컨의 원리

에어컨의 기본적인 원리는 기화열에 의한 냉각이다.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데, 이때 흡수하는 열을 기화열이라 한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기 직전 맞을 부위에 알코올 솜이 닿으면 피부가 차가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주위 열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에어컨의 기본 원리이다.

에어컨 시스템

주위의 열을 계속 흡수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화 액체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야 한다. 기화한 기체를 대기 중에 방출해버리면 또다시 액체를 공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에어컨은 증발한 기체를 다시 액화해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에어컨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자.



냉매(Refrigerant) 에어컨 시스템에 사용되는 증발하기 쉬운 열 매체를 말한다. 화학적으로 안정돼 폭발성이 없고, 불연성이며 무독성이다. 주로 염화플루오르카본(CFC)을 냉매로 사용했으나 오존층 파괴 원인으로 사용이 제한되었다. 현재는 수산화플루오르카본(HFC)을 대체 냉매로 사용하고 있다.

압축기(Compressor) 압축기는 엔진과 고무벨트로 연결되어 있다. 에어컨을 사용하면 출력이 부족해지거나 연비가 나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본적으로 냉매의 액화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쉽게 일어나는데 압축기는 저온, 저압의 기체 냉매를 압축해 고온, 고압의 기체로 만들어 응축기로 보낸다. 자동차용 압축기는 크게 왕복식과

회전식으로 나눌 수 있고 11종 정도가 실용화되고 있다.

응축기(Condenser) 응축기는 압축기로부터 유입되는 고온, 고압의 기체를 주행풍과 냉각팬을 이용, 강제로 냉각시켜 중온, 고압의 액체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응축기는 라디에이터(Radiator)와 같이 전면에 설치되어 있고 주로 알루미늄으로 만든다. 냉매가 액체로 변화되는 상태가 불량하면 냉각 성능을 저하시키므로 응축기의 방열량 결정이 중요하다.

리시버 드라이어(Receiver Drier) 압축기는 엔진과 연결되어 있어 엔진 RPM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 그에 따라 냉매가 순환되는 양도 변화해야

손가락 하나로 간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에어컨이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원리가 숨어 있다.

하는데, 리시버 드라이어는 일정량의 냉매를 저장하여 그 변동에 대응한다. 또한 냉매 내 기포, 수분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팽창밸브(Expansion Valve) 팽창밸브는 증발기 입구 혹은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중온, 고압 액체 상태의 냉매를 교축 작용(배관의 관경을 줄이는 것, 분무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을 통해 저온, 저압 액체 상태로 만든다. 또한 냉매의 온도를 감지해 유량을 조정하여 최적의 냉각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증발기(Evaporator) 증발기는 저온, 저압 상태의 액체 냉매를 순식간에 증발시켜 주변의 열을 흡수한다. 이때 증발기는 열을 빼앗기면서 굉장히 낮은 온도가 되고, 팬을 통해 증발기의 냉기를 실내에 전달하게 된다. 이때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도 응축되어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은 증발기 내부 호스를 통해 차량 밖으로 배출된다. 간혹 엔진룸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증발한 냉매는 저온, 저압 기체 상태가 되고 다시 압축기로 돌아가 에어컨 시스템을 순환한다.

위에서 설명한 각 장치는 파이프와 호스로 연결되어 있고, 각종 전자 스위치를 사용해 에어컨 시스템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한다.^⑩

쾌적한 드라이빙을 위해

지금까지 에어컨 원리 및 시스템에 관해 알아보았다. 끝으로 차량에서 효율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습관을 제시한다.

첫째, 시동과 동시 또는 엔진 부하가 많을 때에는 에어컨 사용을 삼간다. 에어컨 시스템 부하 및 엔진 출력이 저하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처음 에어컨 작동 시 에어컨을 강하게 작동한다. 처음부터 강한 바람으로 실내 온도를 낮춘 후 냉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조금 더 경제적이다.

셋째, 시동 끄기 10분 전 에어컨을 끈다. 증발기 및 주변에 맺힌 수분이 제대로 마르지 않으면 각종 먼지와 뒤엉켜 세균을 만들고 악취를 유발한다. 에어컨을 끈 후 송풍 또는 외기로 시스템 내부를 말려주는 것이 좋다.



※정정합니다.
지난호 '카 앤 타이어'의 엔진오일 규격 중 점도 규격 문단에서 고온 특성 등급(16~60W: 100℃ 기준)을 고온 특성 등급(16~60: 100℃ 기준)으로 정정합니다.

야구광 사우들의 맛있는 수다

야구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 그 첫 회를 장식할
주인공은 서울사무소의 야구 광팬 4인방이다.

글 이진우 사진 이용관



Hello NEXEN

에디터: 오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 광팬' 여러분. 맛있는 태
국 음식과 함께 맥주 한잔하면서 편하게 얘기 나눠요. 먼저 어떻게
야구를 좋아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김인 과장님(이하 김 과장)은
MBC 청O 어린이 회원 출신이라면서요.

김 과장: 어릴 때 야구를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 전주에서 서울로
전학 왔는데 전주 친구들이 "너 야구하러 서울 가냐"고 할 정도로. 야
구를 좋아하기도 했고, 잘하기도 했고.

김희진 대리(이하 김 대리): 어? 과장님 근데 전주에 계셨는데
왜 MBC 청O...?

김 과장: 사실 해O 타이거즈 가입하려고 했는데 마감돼서... 거기
다 우리 유니폼이 배에 동그랴게 뭐가 튀어나와 있어서 안 그래도 놀
림 많이 받았지. 그래도 껏껏하게 입고 다니면서 응원했다고~

박대희 대리(이하 박 대리): 저도 어릴 때 축구만 하면 질리니까
테니스공으로 주먹 야구 하다가 야구에 빠졌어요. 당시에 제가 응원
하는 팀이 매번 이기니까 재미있고. 요즘엔 국가대항전도 잘하잖아
요. 더 신나죠.

김 대리: 맞아요, 야구 보면서 뭔가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건
응원이 재미있어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응원
가 부르고 파이팅 외치면 뭔가 에너지가 꺾 들어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응원이 더 재미있는 다른 팀도 있지만요.

김 과장(+에디터): 응원은 엘O지.



영업정보전략팀 김인 과장

MBC 청O 어린이 회원 출신.
프로야구 원년 때부터 20년 넘도록
LG 트윈O(이하 엘O)만 응원하고
있는 의리남. 어디서도 야구 중계를
놓치지 않는 건실한 팬.



총무팀 박대희 대리

해O 타이거즈의 팬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아주 어릴 때부터 야구를 사랑한
남자. 야구는 해O만 잘하는 줄
알았던. 여전히 기O를 응원하는
야구광.



총무2팀 김희진 대리

2010년 입사 이후 넥O
히어로즈를 응원하면서 야구에
빠진 미모의 대리. 웬만한 야구팬
돌아가는 상황은 다 꿰고 있는
'야구 아는 여자'.



영업정보전략팀 김한나 사우

이제 막 야구의 룰을 깨치기 시작한
야구 새내기. "넥센타이어를 더
사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대!"라고 외치는 두O
베이스 팬.

김한나 사우(이하 한나 씨): 응원 하면 두○ 아닌가요.

김 대리: 이거 왜들 이러세요. 넥○ 응원도 얼마나 재밌다고. 우리 단체 응원갔을 때, 다들 구장에서 소리 꽤나 질렸잖아요?

박 대리: 맞아 맞아. 엘○ 응원도 물론 인정. 근데 사직구장 가면 롯데 자이언츠도 장난 아니죠.

김 과장: 우리 회사랑 히어로즈가 스폰서십을 맺기 전, 내가 양산에 근무할 때였어. 그때 사내에 롯데 팬이 많았지. 어느 날 동료들이랑 호프집에서 야구를 보는데 롯데랑 엘○ 경기였거든. 롯데가 계속 이기다 막판에 엘○가 역전한 거야. 내가 좋아서 박수를 막 쳤더니 그때 받은 눈총이... 어마어마했다고.

박 대리: 맞아요. 야구에는 뭔가 주변을 안 보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야구 보는데 제가 응원하던 팀이 역전한 거예요. 진짜 기분 좋아서 "아~싸~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라고 외쳤지 뭐예요. 임신한 아내가 입덧하느라 고생하던 때였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이건 아직도 미안해요. 하하.

에디터: 맞아요, '역전', '끝내기'. 이걸 야구의 매력으로 꼽는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 과장: 우리 팀이 꼴찌 하다가 순위 치고 올라가면 정말 재밌잖아요. 그 재미로 보는 거죠. 초반부터 계속 지면 힘 빠지긴 하지만. 한 번의 역전, 치고 올라가는 그 희열.



박 대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9회 말 2아웃에도 역전할 수 있고. 야구의 재미가 거기 있는 거죠. 하루 동안 고단했던 거, 심각했던 일 다 잊고 역전 한 번에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거~ 근데 그게 오히려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요. 지고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보게 되고.

김 대리: 맞아 맞아. 지고 있으면 그만 보고 자려고 누웠다가 그래도 궁금하니까 다시 확인하고. 근데 그러다 최종적으로 지면 괜히 나 때문인가 싶어서 야구 보기 말고 '청소나 할걸'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박 대리: 푸하하. 이게 희망 고문이지. 이러니 야구 팬들 삶이 힘들어요. 한두 시간 하는 게임도 아니고, 퇴근한 직장인에게 서너 시간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다 투자해서 봤는데 지면. 특히 다 이긴 게임 역전패당하면 그 허무함은 아...(감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던 박대리가 소주를 한 잔 들이켰다.)

에디터: 다들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예요?

김 대리: 난 박병호 선수. 항상 열심히 해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야구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박 대리: 전 최근에 브렛 필 선수. 경기도 잘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선수들과 융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돌잔치도 한국식으로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까? 근데 또 그런 선수가 멘탈적으로 약할 수 있는데 브렛 필 선수는 점수 낼 땐 또 딱 내요. 그게 멋있더라고요. 잘생기기도 했고~

김 대리: 잘생긴 건 스나이더지.

3인방 이구동성: 한나 씨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한나 씨는 누구 좋아해요?

한나 씨: 저는 아직 선수까지는... 이제 겨우 물을 깨친 상태라. 입문 시점입니다. 헤헤. 과장님은요?

김 대리: 무조건 박용택 선수 아니겠어?

김 과장: 그치. 큰 이병규, 박용택, 지금은 오지환 선수도.

에디터: 구장엔 자주 가는 편이세요?

김 과장: 전 구장에 갈 시간이 없어서 TV나 스마트폰으로 봐요. 특히 주말엔 가족이 있는 양산 집에 내려가는데 KTX에서 경기 보다가 집에 가서 현관문 열고 방에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편하죠. 긴 경기 시간 때문에 집에서 채널 갱탈



전이 벌어지니, 안방에 작은 TV 하나 마련했어요. 거의 야구 관전 전용으로.

박 대리: 대단하시다.(ㄱ ㄱ) 야구는 인터넷으로! 다중 분할로 다룬 팀 경기까지 봐야죠.

김 대리: 집이 강원도라 연고지가 없으니 구장에 잘 안 가긴 했어요. 넥○ 경기에 관심 가지면서 야구 보게 된 거지. 이제 동구장으로 옮겼으니 날씨도 크게 상관없겠다, 자주 갈 것 같아요.

에디터: 이번에 히어로즈와 재계약해서 더 좋으셨겠어요.

김 과장: 우리 회사와 히어로즈 사이에 원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에디터: 앞으로의 야구 사랑은?

김 과장: :엘○가 있는 한, 계속되겠죠.

김 대리: 저도 계속 즐길 것 같아요. 이제 야구가 제 취미로 자리잡았으니까. 제가 넥센타이어의 직원인 한 넥○ 사람은 쫓~ 갈 것 같아요.

박 대리: 경기 보는 거 힘들다면서도 죽을 때까지 기○ 점수, 순

위 확인하며 살 것 같네요. 아, 넥○ 경기 챙겨보는 건 물론이고요.


에디터: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에게 더 신경 쓰셔야지. 야구 잘 못 보실 것 같은데요.(실제로 박대희 대리는 12월 말에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다. 축하합니다~!)

박 대리: 아기 낳으면 야구 볼 시간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아기 보면서 야구 볼 수 있잖아요. 틀어놓고!

김 과장: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경험자로서 얘기하는데 그거 절~대 안 된다. 한나 씨는 결국 몇 마디 못하네.

한나 씨: 오늘 얘기 들었니까 야구에 더 관심이 생긴 것 같고... 올해 넥센데이도 많이 기대됩니다.

에디터: 네~ 상당히 무미건조한 한나 씨의 느낀 점으로 오늘의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분?

박 대리: 야구는 저리 무미건조한 게 아닙니다. 야구는 '축제'죠. 특히 구장에 가면 들뜨고, 맛있는 거 먹고, 응원하면서 다 같이 즐기잖아요. 올해는 넥센인 모두가 야구를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
다! 



병나발 말고 팩나발

처음처럼 순한 쿨, 순하리 유자 파우치, 처음처럼 스티키 몬스터

파우치 타입의 치어팩 '처음처럼 순한 쿨'은 기존의 페트, 종이팩 소주보다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다. 특히 치어팩 용기는 빨리 차가워지는 장점이 있어 언제 어디서든 시원한 소주를 즐길 수 있다. 살짝 얼려 흔들고 주무르면 슬러시처럼 마실 수도 있다. 지난해 과일 소주 열풍을 일으킨 순하리 유자맛 또한 '순하리 유자 파우치'로 출시돼 인기몰이 중이다. 그 뒤를 이어 출시된 '처음처럼 스티키 몬스터'는 한정판으로 소장 가치가 높다.



특별한 자리를 특별하게 빛내줄

패키지 알코올 아이템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으로 바쁜 요즘, 잔 부딪치는 소리가 연일 계속된다. 이번 주말 역시 반가운 얼굴들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면 조금 색다른 술로 자리를 빛내보자. 글 김이람 자료협조 롯데주류, 태산주류, (주)장성글로벌, (주)아영FBC, The Vin CSR, 하이트 진로, 인스터에프앤비



비싼 사케를 저렴하게 즐기는 방법

간바레오토상, 오와리오토코야마

사케는 '고급이라 비싼 술'이란 인식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케는 밖에서 먹기에 비싼 게 사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딱 좋은 용량의 '컵 사케'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터. 국내에서도 유명한 '간바레오토상', 오와리 지방 특색에 부드러움을 더한 '오와리오토코야마' 등 다양한 컵 사케가 있으니 눈여겨보자. 먹고 난 후, 사람들과 빈 유리컵을 나눠 갖는 것 또한 쓸쓸한 재미다.



이탈리아의 맛과 멋을 담은

원 글라스 와인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제조된 '원 글라스 와인'. 이 제품은 100ml의 적당량을 포장한 세련된 패키지 디자인이 돋보이며, 특수 포일링 처리 방식으로 밀봉해 신선한 상태의 와인을 자랑한다. 4개입, 8개입 선물용 패키지가 있어 연초,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도 안성맞춤이다. 카베르네 소비뇽, 산지오베제, 베르멘티노, 피노그리시오 등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와인을 지인들과 함께 나눠보자.



내리고, 꺾고, 마시자

스택 와인

항아리 모양의 독특한 패키지 디자인이 눈에 띄는 '스택 와인'. 이 제품의 지퍼를 외투 벗기듯 내리면 그 안에 달콤한 와인이 든 작은 컵 4개가 들어 있다. 한 컵씩 분리해 바로 마실 수 있어 여럿이 나눠 먹기 좋다. 따로 오픈러와 잔을 챙길 필요 없고, 투명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잔은 추후 보관 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다. 먹는 맛은 물론 보는 맛까지 선사할 스택 와인으로 화기에אה한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신년호 사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시우 중 추첨을 통해 '주류 아이템'에서 선정된 제품 중 처음처럼 순한 쿨, 순하리 유자 파우치, 스택 와인, 원 글라스 와인을 선물로 드립니다! (개별 연락 후 랜덤 발송됩니다.)

고급 와인을 부담 없이

튜브 와인

고급스러운 와인으로 분위기를 내고 싶는데,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튜브 와인'이 제격이다. 이 제품은 그랑 크뤼(오래 숙성된 최고급 와인을 만들어내는 마을) 등급의 와인으로 최근 유럽 트렌드세터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튜브 와인은 다양한 종류의 고급 와인을 한 잔씩,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부어라, 마시라 하는 자리에 지쳤다면 튜브 와인과 함께 여유롭고 차분한 시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캔 맥주처럼 따 먹는

와인스타

'와인스타'는 프랑스 와인 최고 등급인 AOC 등급이다. 캔 와인으로 담아 일반 캔 커피, 캔 맥주처럼 마시기 간단하고 편하다. 한 캔당 187ml. 대략 두 잔 정도 양으로 1~2인이 마시기에 적당하다. 4개의 캔이 패키지로 판매되어 캠핑족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 다가오는 주말, 친구들과의 편한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면 '캐주얼'한 와인을 즐겨보자.



와인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베티

와인 마실 때, "와인 잔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베티'를 추천한다. 친환경 소재 강화 페트 잔에 와인이 담겨 있는데 깨질 염려가 없어 실용적이다. 이 제품은 강한 타닌 맛의 '베티 카베르네 소비뇽', 딸기와 라즈베리 맛의 '베티 로제', 상쾌한 감귤 맛의 '베티 소비뇽 블랑' 3가지 종류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NEXEN COOK

두부

요즘 TV를 틀면, 요리하는 남자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인기리에 방송된 <집밥 백선생>의 요리 연구가 백종원부터
<삼시세끼>의 영화배우 차승원까지. 그들은 앉은자리에서
똑딱 맛깔스러운 요리를 탄생시킨다. 그 모습을 보면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넥센 요리사’는 사우들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셰프 본능을
깨우기 위해 집에서 쉽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 레시피를 소개할 예정이다. 오늘 저녁에는 친구, 연인,
가족을 위해 부엌으로 향해보자. 또 직접 만든 요리
인증샷을 보내 ‘넥센 요리사’로 선정된 사우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는 사실, 기억해두자! 그러면 오늘은
‘발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리는 두부로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해보자.

글 김아람



두부 요리 레시피

어떤 식재료와 섞어도 본연의 맛을 지키며, 잘 어울려 누구나 즐기는 두부. 그 요리법 또한 간편하니, 참 착한 음식이 아닐 수 없다. 건강하고 간단한 두부 요리 레시피를 소개한다.

자료협조 용동희 <이지 쿂� 두부>
싸이프레스

두부 과자

요리 재료

두부 1/4모, 달걀 1/3분량, 밀가루 100g, 설탕 30g, 검은깨 2큰술, 오일 1컵, 소금 약간

요리 과정

- ① 두부를 칼등으로 곱게 으갠다.
- ② 으갠 두부에 달걀을 섞고, 설탕과 밀가루를 넣는다.
- ③ 검은깨도 넣어 넣고, 냉장고에 10분간 둔다.
- ④ 반죽을 약 2mm 정도로 얇게 밀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 ⑤ 오일에 노릇하게 튀긴다.

TIP

검은깨 대신 견과류를 넣어도 좋다. 반죽을 얇게 밀수록 더 바삭바삭하게 튀겨진다.

두부가스

요리 재료

두부 1/2모, 빵가루 1컵, 밀가루 1/4컵, 달걀 1개, 오일 1컵, 소금 약간, 돈가스 소스 (시판용) 적당량

요리 과정

- ① 두부를 넓적하게 썰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린다.
- ② 키친타월로 물기를 살짝 제거한다.
- ③ 밀가루→달걀물→빵가루 순으로 튀김옷을 입힌다.
- ④ 오일에 노릇하게 튀긴 후 돈가스 소스를 뿌린다.

TIP

먹을 때 곱게 채 썬 양배추 또는 어린잎 채소를 곁들이면 맛도 좋고, 영양도 업그레이드된다.

두부 날치알 샐러드

요리 재료

두부 1/2개, 날치알 4큰술, 다진 양파 3큰술, 참기름 1/2큰술, 소금·후추·참깨 약간씩

요리 과정

- ① 두부를 칼등으로 으갠다.
- ② 면포로 감싸 물기를 꼭 짰다
- ③ 으갠 두부, 날치알, 다진 양파에 참기름, 소금·후추·참깨로 간하여 버무린다.

TIP

두부를 으갠 때는 아주 곱지 않게, 즉 입자감이 느껴질 정도로만 으개야 식감이 좋다.

두부김치

요리 재료

김치 1/2포기, 두부 1모, 양파 1/4개, 대파 1대, 들기름 2큰술, 고춧가루·고추장·올리고당 1큰술씩, 설탕 1작은술, 소금·후추 약간씩

요리 과정

- ① 양파는 채 썰고, 김치는 한 입 크기로 자른다.
- ② 들기름을 두른 팬에 양파와 김치를 넣고 김치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는다.
- ③ 여기에 고춧가루·고추장·설탕·소금·후추를 넣고 함께 볶는다.
- ④ 마지막으로 올리고당과 대파를 넣는다.
- ⑤ 두부는 통째로 끓는 물에 삶은 후, 한 입 크기로 잘라 볶은 김치와 곁들여낸다.

TIP

생두부를 이용할 경우 삶는 과정은 생략해도 상관없다.



두부 요리 맛집

배꼽 속까지 찬 바람이 스미는
한겨울엔 보드랍고 뜨끈한 두
부가 제격이다. 오늘 퇴근길에
는 두부 요리로 소문난 맛집으
로 향해보자.

사진 이용관, 콩스콩스, 백년옥,
민조리, 류블리, dal



가마솥에서 빛은 두부의 진수 초가손두부

메뉴 손두부(두부김치) 한 모
6천 원, 두부김치 두루치기(小)
2만 3천 원
위치 경남 양산시 신가길 13
문의 055-381-7492
영업시간 10:00~22:00

1998년부터 양산 지역의 두부 맛집으로 유명한 초가손두부. 가마솥을
이용해 직접 만든 손두부는 그 고소함이 이루 말할 데 없다. 맛깔스러
운 두부 요리를 주문하면,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밑반찬과 함께 한
상 푸짐하게 차려낸다. 두부, 김치, 돼지고기의 삼합이 돋보이는 두부
김치 두루치기는 이곳의 인기 메뉴. 순두부찌개, 콩비지찌개 등 간단한
식사 메뉴도 가능하니, 추운 겨울날 뜨끈한 두부 요리 먹으러 가기 좋
은 곳이다.

풍성하고 새로운 퓨전 두부 콩스콩스

메뉴 콩스콩스 정식 1만 5천 원, 단호박 돼지갈비찜과
연어(냉샤브샤브) 1만 5천 원 위치 경기 파주시 지목로 152
문의 031-948-0057 영업시간 11:00~22:00

이곳은 콩으로 유명한 파주에 위치한 퓨전 두부 요리 전문점
이다. 메인 요리를 시키면 기본 상차림으로 두부를 이용한 다
양한 요리가 등장한다. 쇠고기 등심과 우엉을 두부피로 감싼
두부피 스테이크, 상큼하고 달콤한 순두부 라즈베리, 새콤하
고 짭짤한 두부 초밥,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두부 탕수 등 기
본 상차림만으로도 가지각색의 퓨전 두부 요리를 맛볼 수 있
다. 메인 요리로는 단호박 돼지갈비찜과 연어(냉샤브샤브)가
인기라니 참고하자. 또 입구에는 콩비지가 준비되어 있어 원
하면 누구든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



두부의 색다른 식감 수가성

메뉴 두부보쌈(2인) 2만 원,
순두부찌개 6천 5백 원
위치 대구 달서구 와룡로5길 23
문의 053-527-9400
영업시간 10:00~22:00



색다른 두부를 원한다면 수가성에 가보자. 이곳에서 두부 보쌈
을 주문하면 윤기가 흐르는 돼지고기와 종잇장처럼 얇은 두부가
나오는데, 이 두부는 두부를 얇게 압착시킨 것으로 '포두부' 혹은
'건두부'라고 불린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식감 또한 보통 두부와
다르게 쫄깃쫄깃해 돼지고기와 궁합이 좋다. 돌솥밥과 함께 보쌈
을 먹고 난 후, 송늬를 만들어 먹는 것 또한 묘미. 이 밖에도 조개,
굴, 만두 등 무려 9가지 식재료를 메인으로 한 순두부찌개를 취
향대로 맛볼 수 있다.



서울에서 두부 맛으로 정평이 난 백년옥은 25년
째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강원도에서
키운 콩을 갈아 미시령 천연 간수를 넣어 만든
'건강한 두부' 맛이 그 이유다. 어떤 조미료도 없
이 그 자체로 구수하고, 담백한 맛의 두부와 들
깻가루, 참기름, 다진 채소, 간장 등이 들어간 양
념장과의 조화는 단연 일품. 야채와 콩비지를 넣
은 콩비지전이나 영양 만점 매생이전 또한 이곳
만의 별미다. 맛과 건강,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다면 참고해두자.📍

천연의 두부를 맛보고 싶다면 백년옥

메뉴 백년 생두부 부침(小) 5천 원, 자연식 순두부 8천 원
위치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7 문의 02-523-2860
영업시간 10:00~22:00



항상 일만 하던 아빠가 항상 일만 하는 아빠에게

지금,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아빠를 향해 방긋 미소를
띤다요, 혹은 아빠의
시선이 어색해 고개를
돌리나요.
아이가 어떤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는가는
순전히 아빠의
몫일 것입니다.

글 / 사진 김동권 <아빠와 10분
창의놀이> 저자, 아빠와 함께하는
10분 게임(www.monsterdad.kr)
운영)

놀이를 통해 달라진 아이

소위 일중독 아빠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는 일이라곤 지친 몸을 소파에 맡기고 TV를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곁에 다가와 뭘 물어도 “어, 그래” 이렇게 건성으로만 대답하며 “피곤해, 다음에...”라는 말만 되풀이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아홉 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어김없이 피곤한 기색으로 멍하니 아이를 바라봤는데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였습니다. 제 땀에는 아빠의 얼굴이 무섭게 느껴졌나 봐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아이에게 괴물 아빠로 비치겠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군요.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서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와 보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아이에게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도 낯설었고요. 그래서 결심한 것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와 10분만 놀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칭찬 들어온 손재주를 살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활용품을 이용해 아이를 위한 장난감을 만들고, 그 장난감으로 아이와 어떻게 놀까 고민했고 다양한 놀이법을 개발했죠.

하루에 아이와 10분 놀이를 매일 반복하다 보니, 금세 아이와 돈독해지더군요. 제 방에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하던 아이가 10분 놀이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빠 방에 스스로 들어가 뒹눴습니다. 10분 놀이를 시작한 지 두 달 되었을 때 ‘아빠 최고!’라는 메모와 함께 자기가 아끼던 과자를 건네더군요.

놀이는 아이의 콤플렉스도 완화시켜줍니다. 화장실에 가서 대변 보는 것을 몹시 부끄러워하던 아이를 위해 번기 커버에 하마 그림을 그려 붙여줬죠. “이 번기는 입을 찢어 벌린 똥 먹는 하마야. 네 똥을 먹고 살지. 네가 응가를 열심히 해서 하마를 잘 길러보렴” 이렇게 설명해주었더니, 그때부터 아이는 대변 보는 것을 즐겁게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즐기다 보면
아이도 아빠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놀이는 아이뿐 아니라 아빠 스트레스도 해소

놀이는 아이뿐 아니라 아빠의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와 놀다 보면 어느 정도 운동도 되고, 아빠와 친숙해진 아이가 방긋 웃으며 아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방긋 웃는 아이의 모습에 그날 쌓인 정신적 피로가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놀이를 할 때 아빠와 아이의 공통 관심사에 관련된 놀이를 많이 하면 서로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아빠가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관심사가 담긴 놀이를 하면서 아빠도 같이 즐기게 됩니다. 제 아이는 야구광입니다. 그래서 야구와 관련한 놀이를 많이 만들어서 즐겼습니다. 하루는 딸기 포장 케이스로 야구 글러브를 만들고 신문지 공으로 캐치볼 놀이를 했는데 아이가 그것을 1년도 넘게 갖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쳐서 그런지, 저녁엔 머리 쓰는 놀이보다 단순한 놀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기 알로 알까기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아이와 놀기 위해 여러 버전의 알까기 놀이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과일상자 보물섬 3차원 알까기 놀이’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좋아하는 것에도 함께 맞춰서 놀면 아빠의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서로에게 좋습니다.

아빠가 등산이나 스포츠를 좋아하면 동네 뒷산 나들이나 가벼운 공놀이 등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면 같이 타고, 책 읽기를 좋아하면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놀이라고 꼭 저처럼 재활용품을 이용한 놀이를 해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뭘 만들고 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빠라면, 본인이 즐거운 소재를 찾아서 그것을 아이와 함께 하면 그 시간이 놀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빠와 아이가 부담 없이 매일 그 놀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일상에서 매일 아이와 함께 즐기는 것. 이것이 일만 하는 아빠가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찾은 방법입니다.

과일상자 보물섬 3차원 알까기 놀이

이름은 거창하지만
과일상자와 장기 알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다.
과일상자는 ‘거대한 바다’,
장기 알은 보물섬을 찾아
항해하는 ‘선원들’이다.
깊은 바다에는 보물섬뿐
아니라, 호시탐탐 선원들의
목숨을 노리는 상어가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
자, 그럼 누가 먼저
보물섬을 차지할 것인가.
가족들과 흥미진진한
대결을 펼쳐보자.



1 양옆으로 장기 알을 나열할 수 있는
과일상자를 준비한다. 상자 절단면을 볼펜이나
유성매직으로 한두 번 문질러주면 손을 벨
염려가 없다. 상자 안쪽 면은 바다다. 바다
한가운데 동그란 섬을 그려놓고 보물 상자도
하나 그려 넣는다.

2 보물섬 주위로 선원들의 목숨을 지켜줄
4대천왕, 즉 돌고래·거북이·개복치·뗏목을 그려
넣는다. 두 군데는 상어 지느러미를 그려 넣는다.
그림에 자신이 없다면 동그라미만 그리고
그 안에 ‘거북이’라고 글씨를 쓴다.

3 배를 타고 보물섬을 찾아 헤매야 할 빨강팀과
초록팀. 두 배는 보물섬을 코앞에 두고
맞닥뜨린다. “저 보물은 우리가 먼저 발견했어!
그러니 우리 거야.”, “무슨 소리!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지! 누가 차지하는지 실력을
겨뤄보자고!”

4 양 팀이 서로 번갈아가며 보물섬을 향해
선원들이 뛰어들게 한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알까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 조절은 필수.

5 섬 위에 떨어지면 살고, 바다 한가운데
떨어지면 물에 빠져 죽는다. 죽은 선원은 상자
밖으로, 보물섬 위에 한 번 올라간 선원은 더
이상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간단히 준비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과일상자 보물섬
3차원 알까기
놀이’로
아이와 즐거운
추억을 쌓아보자.



6 바다 한가운데 떨어졌지만 세로로 떨어지면
아직 죽지는 않고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상태다.
이 경우 선원을 상자 밖으로 꺼내지 않고 그대로
둔다. 본인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지만,
다른 선원에 튕겨져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7 세로로 떨어졌는데, 마침 도우미 4대천왕
위나, 보물섬 위에 떨어졌다면 본인도 살고 또
기존에 죽어서 상자 밖으로 나갔던 같은 편 선원
중 한 명을 다시 살려 갑판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 세로로 떨어지는 건 행운의 찬스!

8 도우미 4대천왕 위에 떨어진 선원은 계속해서
알까기를 할 수 있다. 보물섬을 향해 알까기를 할
때, 상대편 선원이 있다면 섬 밖으로 밀어내도록
한다. 물론 밀어내지 않고 같이 보물섬에 있어도
된다.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튕겨져서 섬 밖으로
밀려나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되면 바로 죽는다.
이 경우 상자에서 바로 꺼낸다.

9 보물섬 위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조심해서
튕겨야 한다. 같은 편 선원을 섬 밖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고, 또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상대편
선원을 뗏목 등에 올려서 다시 살아나게 할 수도
있기 때문.

10 상어 지느러미 위에 선원이 떨어지면 그
선원은 바로 죽지만 혼자 죽는 것이 아니다. 갑판
위에 서 있던 같은 편 선원 한 명도 추가로 함께
죽는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상어!

11 갑판 위에 있던 모든 선원이 다 점프를 하면
게임은 끝난다. 이때 보물섬 위에 상대 팀보다
많은 선원을 올려놓은 팀이 우승. 아랫집이
소음 피해를 겪지 않도록, 상자 아래에 이불을
깔아놓고 하면 좋다.⑩

임직원 가족, 창녕공장을 찾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 우리 아빠 최고!

제법 매서운 바람이 불던 어느
토요일 오전, 창녕공장 본관에
현장 사우의 가족들이 삼삼오오
들어섰다. 오래도록 아들의
일터가 보고 싶던 부모님, 아빠의
업무가 궁금하던 자녀들이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강당에 모여
앉았다.

글 이진우 사진 이용관



창녕공장 가족 투어, 두근두근 기대 가득

올 3월을 시작으로 벌써 4회째 진행되고 있는 창녕공장의 ‘클린 팩토리’ 프로그램. 창녕공장 임직원의 가족 또는 지인이 참가해 우리 자녀, 아빠, 남편의 근무 현장을 둘러보고 타이어 생산에 관한 궁금증도 해소한다.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수많은 가족과 지인이 참가를 신청하며 국내 최첨단 설비를 자랑하는 창녕공장 탐방을 희망하고 있다.

“TV로만 보던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에 직접 와보니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좋네요.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이육동 사우의 어머니 김민주 씨가 연신 싱글벙글이다. 기대 반, 설렘 반, 아들이 일하는 곳을 직접 볼 수 있다는 마음에 입가에 미소가 가시지 않는다.

미리 준비된 창녕공장 소개 동영상을 통해 창녕공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현장 환경이 여타 공장에 비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 공정 물류 자동화 시스템으로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OE 타이어를 공급한다는 설명에 몇몇 사우의 아버지가 바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본인이 앉아 있는 곳, 아들이 근무하는 이곳이 넥센타이어의 세계 수출 전진기지라니. 절로 어깨가 으쓱해지는 건 아마 더욱 크게 느끼기 시작한 자부심 때문일 테다.

쾌적하고 안전한 현장에 안심 또 안심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을 둘러볼 차례. 공정 설명에 집중할 수 있는 이어폰을 하나씩 착용한 후 손일수 생산기술팀장의 안내에 따라 공장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저 멀리서 근무복을 입은 박영식 사우가 뛰어나온다. 근무 시간이지만 팀의 배려로 부산에서 오신 부모님께 직접 공장을 소개할 수 있게 됐다. 아들이 이렇게나 살가울 수 있을까. 공정 하나하나 다정하게 설명하는 아들의 모습에 박 사우의 부모님은 가슴이 벅차다.

“아들이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아픈 바람에 얼마간 출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복귀해 건강하게 근무하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게 안쓰러웠는데 이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실 새 없이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계에 한 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에 두 번 놀란 가족들. 공장 안으로 들어갈수록 두 눈이 휘둥그레, 착착 돌아가는 기계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외부인이 공장 내부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공장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창녕공장만의 공기정화시스템으로 타이어 공장 특유의 고무 냄새가 나지 않고, 슈퍼 PEB 공법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깔끔한 현장을 돌아보는 가족들은 공장 안에 있다는 것조차 잊은 듯 보였다.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아빠, 남편, 사랑해요!

사우와
가족들에게
오늘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선물 같은 하루가
되었을 테다.

“아빠! 로봇이 혼자 움직여요. 우와, 신기하다~”

조진은 사우의 두 아들 영민·정민이가 무인자재운반차량(LGV)을 보고 깜짝 놀란다. 자신보다 훨씬 큰 로봇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눈도 없는 기계인데 사람이 앞에 서면 저절로 멈추니 입이 떡 벌어질 만하다. 아빠의 일터가 늘 궁금했다는 아이들. 아빠가 자랑스럽다며,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라는 말이 조진은 사우에겐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아들 면접 볼 때, 요 앞까지는 왔는데 이렇게 직접 현장을 둘러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최첨단 공장이 저희 지역에 있다는 것도 좋는데 이 현장에서 우리 아들이 근무하니 더욱 자랑스럽지요. 이번 투어를 계기로 넥센타이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성장함으로써 고용 창출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평소 신문에 실린 넥센타이어 관련 기사는 물론, 경쟁사 기사까지 스크랩해둘 정도로 넥센타이어에 관심이 많다는 한형탁 사우의 아버지 한종철 씨는 기쁨과 자랑스러운 마음을 담아 아들의 어깨를 두드린다.

아무리 좋은 설비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설비를 사용해 성과를 내는 것은 결국 넥센타이어 사우들이다. 사우들이 뜨거운 땀 흘리며 바빠 일하는 곳을 둘러본 가족들은 사우들에게 그리고 넥센타이어에 더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 이들의 응원에 힘입어 창녕공장이 세계로 뻗어가는 넥센타이어의 중심에 더욱 견고히 자리 잡길 기원한다.¹⁹



어른인 듯, 어른 아닌,
어른 같은 취미

키덜트 문화 속으로

몇 해 전 시작된 키덜트 열풍이 식을 줄 모른다. 키덜트는 어린이를 뜻하는 '키드(Kid)'와 어른을 의미하는 '어덜트(Adult)'의 합성어로 '아이들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을 지칭하는 말이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 시달리는 어른들이 키덜트 문화를 통해 어린 시절 향수를 떠올리고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얻는다면 참으로 반길 일이다.

글 장윤성(前 M25기자,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30~40대 어른아이가 늘어나는 까닭은

지난해 12월 맥도날드 일부 매장 앞에선 뜻밖의 풍경이 펼쳐졌다. 누가 봐도 다 큰 성인들이 어린아이처럼 잔뜩 설레는 표정으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았나?', '의류 브랜드가 유명 디자이너와 콜라보레이션을 했나?' 사람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알고 나면 더욱 의아해할 그들의 목적은 특정 세트 메뉴를 주문하면 받을 수 있는 슈퍼마리오 완구였다.

사실 세상살이에 지친 30~40대가 가질 만한 취미는 그리 많지 않다. 일 때문에, 또 가족 때문에 취미라는 단어 자체를 잊고 살 정도다. 이런 팍팍한 기성세대에게 그리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는 키덜트 문화는 소소하지만 큰 만족감을 전해주는 취미임에 틀림없다. 키덜트 문화를 구성하는 과거의 추억과 장난감 등의 요소가 그들이 처한 현실과 대척점에 놓여 있다는 점 역시 이를 '현실도피'가 가능한, 본분에 충실한 취미로 만들어준다. 현실이 힘들수록 상대적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는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는 게 인간의 습성이니까.

광범위한 키덜트 문화 확산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우선 구매 주체들의 경제력 상승이다. 키덜트 문화의 주요 세대라 할 수 있는 30~40대는 대부분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세대다. 그들이 가진 작은 '경제적 여유'가 피규어나 아트 토이로 치환되는 것이다. 과거 "엄마 100원만" 하던 시절이었다면 절대 스스로 구입할 수



없던 제품을 어렵지 않게 구입하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서 묘한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구매력이 상승되었다 해도 판매처가 적다면 소용없었을 터. 키덜트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와 매장이 상당히 증가해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작용했다. 키덜트 문화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구매 대행 사이트를 기웃거리는 일은 이미 고리짝 시절 추억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비교적 쉽게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니 키덜트 문화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키덜트 문화가 일으키는

긍정적 영향

과거 일부에서는 키덜트 문화 자체를 '반사회적 성향의 오타쿠들만 누리는 특수한 문화'로 인식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감각과 개성을 인정받는 취미로 당당히 용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또다시 원인으로 작용해 더 많은 이가 키덜트적 성향을 자유분방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갖춘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는 기성세대가 즐긴다는 전제하에 키덜트 문화의 단점은 별로 없어 보인다. 여러 요인으로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성세대에게 심심한 위로가 되어주는 것. 이는 최근 등장한 '프렌디(Friendly)'라는



기성세대의 건전한 취미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키덜트 문화는 장점이 많다.



신조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프렌드(Friend)'와 '대디(Daddy)'를 합친 프렌디는 자녀와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내는 아버지를 뜻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와 자녀를 잇는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키덜트 상품이다. 집 나간 며느리는 전어를 구워 돌아오게 한다지만, 아버지를 돌아오게 하는 건 아이와 함께 누리는 키덜트 문화일지도 모를 일이다. 산업적 순기능 역시 무시 못할 수준이다. 키덜트족이 가장 즐겨 찾는 취미 조립 완구 매출은 2011년 1.3% 성장한 데 비해 지난해에는 23% 이상 신장되었다. 이 중 과거부터 꾸준히 사랑받아온 건담 관련 제품은 지난해 약 25%, 다른 프라모델과 피규어 용품 역시 15%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처럼 키덜트 문화는 관련 사업 전반의 부흥을 책임지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키덜트 문화는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 선불리 예상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더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제품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조종할 수 있는 드론이나 특이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이색 카메라 등은 이미 현실 속에서 키덜트족을 유혹하고 있다. 그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든, 인간의 동심과 과거에 대한 향수가 사라지지 않는 한 키덜트 문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어린 시절 로망의 실현, 다이캐스트 모델카

슈퍼카는 어릴 때부터 꿈꿔온 로망이었지만 실차를 소유하긴 힘드니 '다이캐스트 모델카'에 만족하고 있어요. 다이캐스트 모델카는 1/12, 1/18, 1/24, 1/64 등 다양한 축소 비율이 있고 엔진룸, 도어, 트렁크, 서스펜션, 실내까지 실차에 버금갈 정도로 정교하게 표현돼요. 몇만 원에서부터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도 있답니다.

— 경영관리팀 우상준 대리

← 낙동강에 호화 크루즈가 뒀습니다!

이 섬세하고 정교한 타이타닉호가 만 오천 원에 불과하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프라모델, 일명 플라스틱 모델(Plastic Model)의 장점은 첫째,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둘째, 인테리어 소품으로 더할 나위 없다는 것.

셋째, 내 손으로 완성했다는 만족감이 든다는 것이죠. 사우 여러분도 프라모델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 공정관리파트 박용환



내가 바로 키덜트 아이템 컬렉터!



← 곰 인형에 대한 추억 없는 사람도 있어요?

곰 인형에 얽힌 추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베어브릭'에 한 번쯤은 눈길이 머물렀을 거예요. 베어브릭은 2001년 일본 메티콤 토이사가 개발한 제품으로 유년 시절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연상시키죠. 곰 인형의 포근한 이미지나 막대 사탕의 먹음직스러운 알록달록한 색깔이 그 예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모아왔는데 가짓수가 늘어날 때마다 부자가 되는 느낌이네요.

— 재료연구팀 박다민



← 소니엔젤 웃는 모습에 덩달아 웃음이 나오

양증맞은 모습에 첫눈에 반한 '소니엔젤', 그 후 하나둘 사 모으게 되었어요. 소니엔젤의 가장 큰 특징은 개봉 전까지 그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것. 어떤 모습의 엔젤이 나타날까 기대하는 것도 쏠쏠한 재미랍니다.(지금까지 똑같은 모양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나는야~ 럭키 걸). 장식장 가득 귀여운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하루의 피곤함이 말끔히 씻기는 기분이에요.

— 품질보증팀 서명곡



←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어릴 적부터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을 즐겼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조립계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직소퍼즐은 물론, 최근에는 나노블록, 3D 메탈 모델 등 다양한 조립 아이템이 출시되고 있어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한 가지 작품을 완성하려면 짧게는 3시간, 길게는 2주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 OE개발2팀 조성윤



←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져요~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나노블록을 맞추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한 칸 한 칸 쌓아 올릴 때마다 형태가 드러나는데, 혹여 잘못 끼워 맞추면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죠. 나노블록에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아이들도 덩달아 차분해지니 이보다 더 좋은 취미가 또 있을까요?🎮

— (창)공무팀 진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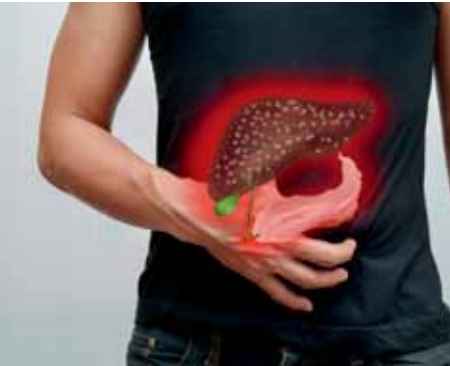
간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장기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간 건강을 해치는 데 익숙해져 있다. 특히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간은 혹사당한다. 조금만 신경 쓰면 지킬 수 있는 간 건강, 그 보호법을 알아보자.

글 신우원(신우원내과의원 원장)

과도한 음주로부터 간을 보호하자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음주량은 세계 평균 음주량의 2배인 12.3L로 아시아 국가 중 1위이다. 특히 찬 바람 불면 팬스레 따뜻한 어묵에 소주 한잔이 그리워지고, 연말연시가 되면 지인들과의 모임이 잦아져 술 마시는 횟수가 자연스레 늘어난다. 사회생활을 하며 어떻게 술을 전혀 안 마실 수 있겠느냐 하소연하겠지만, 간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간을 보호할 수 있으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보통 몸속으로 들어온 알코올은 간에 있는 알코올탈수소효소(ADH)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숙취 원인 물질)로 바뀌어 이산화탄소와 물로 최종 분해된다. 유달리 우리나라 사람이 알코올 분해가 더딘데, 그 이유는 인구 중 절반이 선천적으로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효소(ALDH)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창백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심한 두통이 오는 등 술을 분해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체질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음주가 간 건강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알아보자.



우선 대표적인 간 질환으로는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화증’이 있다. 첫 번째로 지방간은 알코올이 간세포로부터 콜레스테롤이 담즙으로 배설되는 것을 방해하여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는 병이다. 자주 술을 마실 경우, 지방간이 생길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둘째로 알코올성 간염은 술을 해

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무리한 음주를 해서 간세포가 갑작스럽게 파괴되는 병이다. 이는 간경변,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성 간경화증은 매일 소주 1~2병 정도의 술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마시는 경우, 간 곳곳에 섬유화(흉터)가 생기고 간이 딱딱하게 굳는 병이다. 차후에는 복수, 식도정맥류 출혈 등을 가져온다.

간 질환이 생겼을 때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코끝이 붉어지는 딸기코, 손바닥의 혈관이 확장되어 붉게 변하는 수장 홍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간 질환 관련 검사를 해봐야 한다. 또 메스꺼움, 소화불량, 오른쪽 윗배의 불편감, 소변 색깔이 붉어지거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경우 등이 있다. 이는 간 질환에 동반되는 흔한 증상이니 기억해두자.

술은 근심, 걱정을 덜어주고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등 일상생활에 윤희유 같은 역할을 하지만 무서운 질환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제부터라도 건강한 음주법을 통해 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㉞



간을 보호하는 건강한 음주 방법

- ① 과음을 피하기 위해 기분이 나쁠 때는 술을 마시지 말자.
- ② 원 샷을 자제하고 세 번 나누어 천천히 마시자.
- ③ 절주 습관을 위해 술을 권하지 말고, 스스로 마시고 싶은 만큼 잔에 따라 마시자.
- ④ 위장 점막에서 점액이 나와 위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주를 곁들이자.
- ⑤ 2~3차 계속되는 과도한 음주를 피하기 위해 술자리는 되도록 1차로 끝내자.
- ⑥ 간 재생을 돕기 위해 술을 마신 후, 적어도 이틀 동안 간을 쉬게 하자.
- ⑦ 술과 약을 함께 먹으면 간이 손상되니 주의하자.
- (특히 ‘타이레놀’을 술과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간 손상을 일으킨다.)

술과 함께하면 좋은 안주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할 때 탄수화물(당), 비타민, 특히 비타민 B(티아민)을 많이 사용한다. 때문에 배, 복숭아, 감, 오이, 부추와 같은 과일·야채 혹은 기름기가 적은 삶은 돼지 살코기가 술안주로 좋다.

숙취에 좋은 음식

- ① 선짓국 : 선지는 철분·단백질이 많아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② 콩나물국 : 콩나물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 생성을 돕는 아스파라긴산이 함유되어있다.
- ③ 북엇국 : 북어는 지방 함유량이 적고 간을 보호하는 성분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 ④ 시래기 해장국 : 된장은 간을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

나의 엑셀 활용 능력 어느 정도일까

‘직장인 필수’, ‘사무직의 절대 조건’, ‘컴퓨터 활용 능력의 가장 중요 요소’, 이른바 엑셀 앞에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이 수식어가 당신과 무관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엑셀을 외면하지 말 것. 직장에서는 물론 가정에서까지 그 쓰임새가 다양하니, 익숙해지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기특한 녀석이다.

글 김민경

점검! 엑셀力 체크리스트

엑셀은 사용자가 어디까지 알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능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무 업무나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엑셀 작업은 전문가의 지식까지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많고 체계적인 가이드만 있으면 초보자도 어느 단계까지는 스스로 충분히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나의 엑셀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자. 단순히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의 선택보다는 앞으로 엑셀을 활용하는 데 있어 유용한 지침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 및 수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의 표와 서식을 만들어 상대와 공유한다
- 데이터가 모두 입력된 서식을 보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자유자재로 삽입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본을 만든다
- 숫자로 된 데이터를 선이나 면으로 된 다양한 차트로 표현할 수 있다
- 엑셀에서 자주 쓰는 단축키를 10가지 이상 기억하고 있으며 실제 엑셀 문서 작성에 수시로 사용한다
- 중요한 엑셀 문서에 암호를 설정할 수 있다
- 합계, 평균, 최댓값, 최솟값 등의 기본 엑셀 함수를 운용할 수 있다
- 엑셀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원하는 조건의 값을 정렬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검색한다
- 조건부 서식, 피벗테이블, 매크로 기능 등 엑셀의 고급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YES	N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엑셀 기능 활용하기

직장에서 중요한 거래명세서, 견적서,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 외에도 가정의 가계부, 학생들의 용돈 기입장, 생활 계획표 등도 모두 엑셀 프로그램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사용하곤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표와 서식을 이미 배워서 만들 줄 알면서도 여전히 엑셀을 접하다 보면, 풀리지 않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예를 들면 문서 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분명 엑셀의 능력이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간단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방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엑셀과 관련한 방대한 정보가 빠르게 적힌 두꺼운 참고 서적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쏙 골라내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우며, 포털사이트가 내가 원하는 명령어대로 속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줄 확률도 극히 적다. 분명 전문가 수준의 어려운 정보를 원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엑셀 문서를 다루면서 알아두면 유용한 기능 몇 가지를 준비했다.①

‘눈금선 없애기’ 기능

엑셀 화면의 행과 열 부분은 열은 회색의 눈금선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셀의 영역 구분을 위해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입력한 데이터를 캡처했을 경우 눈금선까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물론 인쇄 시 이 눈금선이 프린트되는 일은 없음)작성한 문서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야 하거나 웹상의 공간에 참고자료로 붙여넣기를 할 때에는 눈금선 삭제 기능도 유용하게 쓰인다. 파일→옵션→고급→스크롤 내리다 ‘눈금선 표시’란에 체크 해제 → 확인



카메라 기능 설정하기

카메라 기능은 엑셀 데이터를 그림 개체로 붙여 넣기가 가능하며,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복사한 그림 개체 내부의 데이터도 같이 변경할 수 있다. 단,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메뉴는 나와 있지 않다. 옵션 대화 상자에서 카메라 리본 메뉴를 추가해야 한다. 사용자 정의 탭에 [카메라]를 검색해서 리본 메뉴로 추가해 사용하도록. 옵션 대화 상자에서 ‘카메라 리본 메뉴’ 추가 →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기 전 캡처할 데이터 선택 → 추가한 카메라 리본 메뉴 클릭



CONCATENATE 함수

아무리 복잡한 수식, 수만 개의 데이터가 얹혀 있다 해도 결국은 ‘A=B이다’를 보여주는 엑셀의 함수 기능. 엑셀의 꽃은 함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종류와 기능이 다양한데, 협업할 때 필요한 함수가 CONCATENATE다. 일명 셀 합치기 함수로, 방대한 자료 중 몇 가지를 취합해 양식을 통일할 때 유용하다. 결과 값을 나타내고자 하는 셀에 ‘=CON’ 입력 → CONCATENATE 클릭 → 합치고자 하는 셀을 순서대로 입력 → 사이에 문자를 입력하고 싶다면 쌍따옴표 사용(ex =CONCATENATE(B3, ".", D3) → 드래그하면 전체 적용



Tip 엑셀 필수 단축키 모음

엑셀의 많은 기능은 상단의 메뉴 버튼 속에 모두 숨어 있지만, 작업 시간의 단축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단축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작업 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를 소개하니, 단순히 눈으로 읽고 외우는 것보다는 직접 사용하면서 실제 엑셀 문서 작성에 활용해보자.

Ctrl+Y	실행 반복	Ctrl+K	링크 삽입하기
Ctrl+(;)	시간(날짜) 삽입하기	Ctrl+F2	인쇄 미리보기
Ctrl+Space	열 전체 선택	Shift+Space	행 전체 선택
Shift+Delete	잘라내기	Shift+Insert	붙여넣기
Alt+F8	매크로 상자	Alt+Enter	편집 중인 셀에서 줄 바꿈

직장 생활 실전 매뉴얼



How to 거절

직장 생활에서 겪는 난감한 일 중 하나가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다. 친구나 동료의 돈을 빌려달라는 것에서부터 업무 관련 요청 사항까지. 거절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만 안 된다고 잘라 말하기 힘들다. 쿨하게 “OK!”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 마음이 상하지 않게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글 우용표(더 코칭 & 컴퍼니 대표)

친구 또는 동료가 애절한 눈빛으로 부탁하면 참으로 거절하기 힘들다.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꼭 값을 테니까 좀 도와주라” 또는 “우리 사이에 그런 것도 못해 주느냐”와 같은 말은 마치 내가 나쁜 사람이 된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그래서 “다는 못해주고, 이 정도는 빌려줄 수 있어”라며 적절한 타협점을 찾게 되는데, 돈도 우정도 잃고 싶지 않다면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이럴 땐 당신은 돈을 꼭 빌려주고 싶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어필하자.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적절히 사용할 만한 주옥같은 멘트를 준비했다.

1. 기혼자의 경우

“미안하다. 나도 얼마 전에 와이프한테 비상금 걸려서 탈탈 털렸다.”
“미안하다. 우리 애 학원비도 혁혁대면서 대고 있다.”
“미안하다.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 나도 대출 알아보고 있다.”

2. 미혼자의 경우

“미안하다. 월급은 부모님 드리고 겨우 용돈 받아 살고 있다.”
“미안하다. 지난달에 애인 선물 사준 게 타격이 좀 컸다.”
“미안하다. 주식만 토막 나서 나도 그럴 여유가 없다.”

일단 미안하다고 말한 후 이유를 대라. 그 이유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배우자’, ‘자녀’, ‘집주인’ 또는 ‘거시경제적 상황’이어야 한다. 결국 당신이 돈을 빌려주기 싫은 것이 아니라 상황이 허락하지 않기에 빌려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좀 도와달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미안하다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하라.

냉정하게 “싫어”, “안 돼” 한다면 두 번 다시 상대방을 볼 수 없게 될지 모른다. 돈 때문에 상대방과 어색해지지 않으려면 당신은 지금 ‘도와주고 싶지만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피하고 싶은 “돈 좀 빌려줘”

Keyword

미안하다!



능력 있는 상사는 부하에게 정확히 필요한 업무 지시만 하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 땅의 수많은 상사와 선배는 당신에게 말도 안 되거나 실패가 뻔히 눈에 보이는 지시 사항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때 상사나 선배의 면전에 대고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당신은 그 업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상사나 선배의 입장에서는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현명하고 스마트하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Yes, but’ 접근법이다. 상사가 뭔가 시켰을 때, 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상사뿐 아니라 나까지 바보로 보일 것만 같다면? 우선 첫 번째 멘트는 ‘알겠습니다’가 되어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는데요’가 아니다. 그리고 얼마간은 상사가 시킨 대로 일하다가 중간에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상사가 시킨 대로 했을 때의 예상 문제점과 부하로서의 나의 대안’이다.

박 팀장: 김 대리, 이것을 A 방식으로 처리해보게.

김 대리: (A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알겠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김 대리: 팀장님, A 방식으로 처리해보려 하는데 이런저런 한계점이 보입니다.

B 방식으로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팀장: 그래? 그럼 B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김 대리: (이번에는 진짜로) 알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아래와 같다면 서로가 불행할 뿐이다.

박 팀장: 김 대리, 이것을 A 방식으로 처리해보게.

김 대리: 팀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박 팀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그렇게 처리해서 가져와.

김 대리: 알겠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문제점 발견

박 팀장: 김 대리, 이 문제점 왜 보고 안 했어?

김 대리: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셔서...

박 팀장: 내 저 녀석을 그냥, 확!

상사의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설령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Yes를 해야 한다. 그 후 문제점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Yes, but’ 접근법의 핵심이다(참고로 원래 Yes, but 기법은 대화 시 상대방과 의견이 다른 경우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방법이다).

업무상 잘못된 지시를 받았다면

Keyword

Yes, but...



거절하기 힘든 부탁에는

Keyword

분하게도...



업무를 하다 보면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받을

때가 있다. 들어줄 수는 있으나 ‘양심상’

혹은 ‘회사의 이익’ 측면에서 안 되는

경우라면 크게 고민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구매 부서에 속해 있다.

당신에게 부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A, B 두 회사

가 있는데 회사의 기준에는 A사의 물건이 더 적

합하다. 그런데 친한 형이 B사에 근무한다면? 게

다가 형이 장어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며 “우리 이

번에 물건 잘 만들었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인사 부서에 근무하는 당신. 경력직 입

사 지원자들의 서류를 검토하던 중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띈다. 어릴 때 윗집 살던

엄마 친구 딸이다. 때마침 온 엄마의 메시지. “이번에 민경이 너희 회사에 이력서

넣었다더라. 아줌마가 잘 부탁한다고 전화 왔다. 애가 그렇게나 인재라네~”

자, 이런 부탁 아닌 부탁을 당신 선에서 거절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단칼에

거절했다가는 친한 형과 민경이네 엄마는 물론 우리 엄마까지 무안해질 테니까.

이때 적절한 거절법은 ‘분하게도’ 기술이다. 당신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나름대

로 노력했으나, ‘분하게도’ 윗선에서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식이다. 당신이 거절하

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탁한 사람의 체면도 생각해주어야 하니까. 이쯤

에서 불러보자. 주옥 멘트!

1. 친한 형: 이번에 그 부품 신경 많이 썼잖아. 생산 설비도 바꾸고, 성능도, 디자인도 많이 업그레이드됐어. 아마 관심을 거다. 맛있지? 장어. 이 집 유명한 맛집이잖아.

나: 그 정도야? 알았어. 당연히 내가 신경 써야지. 맛있다, 형.

친한 형: 그래. 이번 물건은 내 아심작이다. 좋은 소식 기대한다. 인마.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 형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밀었는데, 분하게도 팀장님이 봐둔 게 있나 봐.

이번에는 어려울 듯하네. 미안해.

친한 형: 어쩔 수 없지 뭐. 어쨌든 신경 써줘서 고맙다.

2. 엄마: 아까 엄마 메시지 봤어? 민경이 이력서 넣었다는데. 민경이 엄마한테 전화 왔더라고 ~ 경력으로 지원했다. 개가 그렇게 일도 잘한다더라. 아줌마가 민경이 꼭 너희 회사 갔으면 좋겠다고 잘 부탁한다.

나: 알겠어요. 당연히 신경 써드려야죠. 최대한 힘 실어본다고 전해주세요.

엄마: 그래그래~ 우리 아들 찡!

.....이번에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 엄마. 민경이 안 되겠다. 이번에 심사 기준이 엄격해졌는데 다른 지원자가 더 적합한가 봐요. 에이, 그렇게 밀었는데 말이야! 아주머니도 서운하시겠어요.

엄마: 예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민경 엄마도 이해할 거야. 신경 쓰느라 수고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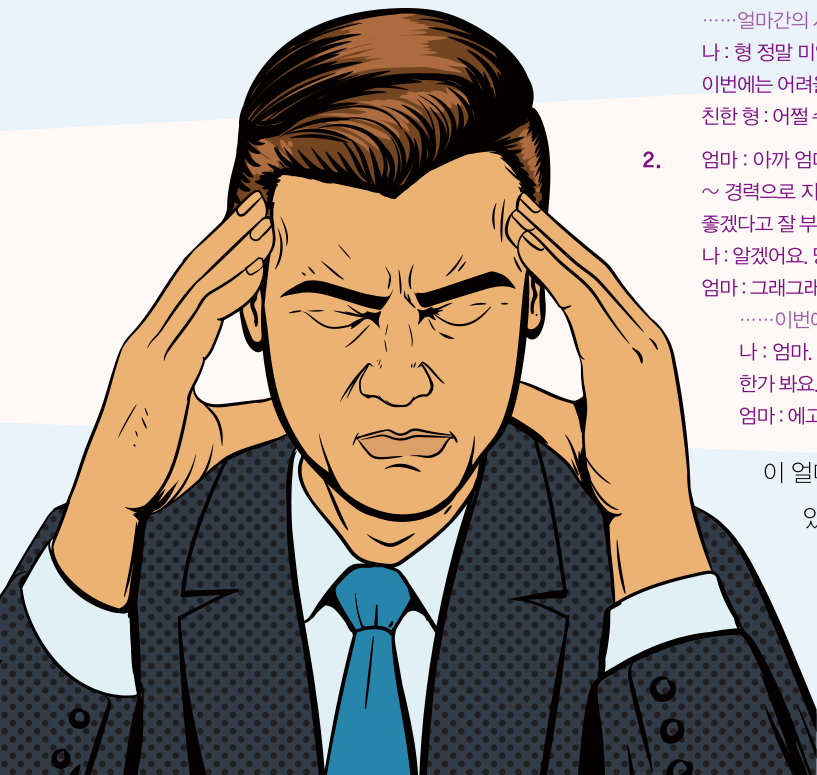
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인가. 최대한 해보았으나 ‘분하게도’ 되지 않

았다는 것. 물론 나는 별다르게 한 일이 없다 해도, 적어도 청탁

을 넣은 사람들의 눈에는 신경 쓰고 애쓴 것으로 보이니 미움

받거나 갈등 일으킬 일은 피할 수 있다.

아이고,
머리야...



OMG

공식적으로 거절해야 하는 경우

Keyword

회의 결과...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과 영업 부서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영업

이 잘되어 주문이 많이 들어가도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면 판매 기회 손

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고, 생산이 잘되어도 영업이 따라가지 못하면 재

고 부담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톡톡히 본 광고 효과로 폭증하는 주문량을 생

산 부서에서 모두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영업 부서에서는 다시 주

문을 넣고 인기 모델을 추가 생산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면?

방법은 쉽다. “생산 능력의 제한으로 추가 생산은 불가합니다”라고 간단

하게 회신하면 된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다. 생산은 많은데

판매가 적은 경우, 생산 부서에서 영업 부서에 “판매량 늘려

주세요”라는 요청을 넣었을 때 영업 부서에서 이에 이, 눈

에는 눈 콘셉트로 “판매 능력의 제한으로 추가 판매가 불가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거절한다면, 서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만일 당신이 생산 부서의 담당자이고 인기 모델에 대한 추가 주문을 받게 되었다

면, 그 주문에 대한 거절은 담당자 당신이 아닌 해당 부서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귀 부서의 요청을 팀 단위에서 검토해보고, 내부 회의를 진행하면서 추가 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상태에서 추가 주문한 모

델에 대해서는 생산 대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회신하면 좋다. 일단

상대 부서의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보았는데 ‘회의 결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미안하다. 이런 식이다. 회의도 안 하고 담당자 선에서

자른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서 자체를 우습게 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부서와 부서 간의 요청에서는 특히 ‘급 맞추기’가 중요하다. 검토하고 회신하는 것

은 담당자이지만, 그 회신은 부서의 회의 결과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이다.

협조 부서, 유관 부서 등에서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가능한 범위에서 100%,

200% 협조하는 것이 맞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

만 원치 않게 거절해야 하는 경우라면 내부 보고를 통해 지침을 받거나 회의를 거

쳐 해당 부서의 요청을 거절해야 한다.

시원하게 “Yes”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것. 이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배려인 것이다.㉞

자동차 경매, 어렵지 않아요!

요즘 부동산 경매로 큰돈을 벌었다는 무용담을 심심찮게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많은 자본과 시간 투자를 필요로 하며 권리 분석을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투자금을 잃게 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자동차 경매는 부동산 경매 대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짧은 기간에 투자 사이클이 마무리되며 리스크가 적은 장점이 있다.

글 배중렬(《자동차 경매 일주일 만에 정복하기》 저자)



Hello **NEXEN**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 번호와 소유자만 알면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며,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주행거리, 최초등록일, 소유자 변경횟수 등이다. 만약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는 주행거리가 10만km인데 실제 자동차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가 8만km라면 이는 분명히 자동차주행거리계를 조작한 것이 된다.

최초등록일 역시 중요한데 자동차는 부동산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감가된다. 그렇기에 2011년식이라서 당연히 2011년식 시세를 확인하고 입찰했는데, 최초등록일이 2010년이라면 그 자동차의 실제 시세는 2010년식 시세로 거래가 될 것이기에 낭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초등록일을 꼭 확인하고, 연식이 아닌 최초등록일의 시세를 따

악해야 한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소유자 변경횟수이다. 단기간에 걸쳐 소유자가 수시로 변경된다면 많은 수리비를 요하는 자동차임이 틀림없다. 필자 역시 스무 살 때 부모님 몰래 80만 원에 중고 자동차를 구매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치명적 결함이 있어 1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오는 자동차였다. 결국 그 자동차는 한 달만 운행하고 다른 이에게 판매하였는데 아마 필자에게 자동차를 구매한 이도 오랜 시간 그 자동차를 소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 많은 정보는
'카히스토리'에서

그다음으로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확인해봐야 한다. 카히스토리란 자동차보험사고로 보상처리한 차량의 수리비 지급내역을 기반으로 차량 이력과 보험사고정보를 제공하는 보험개발원의 서비스다.

카히스토리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는 ① 자동차일반사양(제조사, 차명, 연식, 배기량, 최초보험가입일), ②자동차용도이력(렌터카 등 대여 용도, 영업용, 관용 등의 사용이력), ③소유자변경이력(소유자 변경횟수), ④차량번호변경이력(차량번호변경횟수)을 제공한다.



호변경횡수), ⑤특수보험사고 정보(침수, 도난, 전손처리 정보), ⑥보험사고이력정보(내차처리정보, 타차처리정보, 타인재물가해정보) 등이 있다.

특히 특수보험사고 정보는 주의 깊게 살펴 봐야 할 중요한 정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침수차 또는 전손차의 20%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사고이력정보도 주의 깊게 살펴 봐야 한다. 차량 가격 대비 큰 수리비가 발생한 차량은 99% 이상 큰 사고가 있었다는 의미이며, 보험사고이력정보 중 부품비용 없이 공임과 도장비용만 발생된 내역은 단순 접촉사고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고 시 보험처리 없이 자비로 수리하는 경우 카히스토리에서 확인이 불가하니 카히스토리는 단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자동차 경매 시 특수보험사고정보와
보험사고이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량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이다.

법원 경매가 어렵다면
오토마트 공매를

오토마트 공매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자동차 공매를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공매로서 1,000개 이상의 자치단체 및 4대보험, 공공기관, 할부/리스사가 참여하고 있다.

오토마트 공매의 특징은 법원 경매보다 직장인이 참여하기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법원 경매의 경우 입찰 당일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오토마트 공매는 홈페이지(www.automart.co.kr)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온라인 입찰이 가능하다. 오토마트 공매가 직장인에게 유리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법원 경매는 낙찰 후 직접 법원을 방문해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해야 하며, 그 후 구청에서 소유권 이전까지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오토마트 공매는 행정사가 직접 이전 관련 모든 절차를 대행해준다. 물론 소정의 행정사 수수료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교통비와 이동 시간 등을 감안해 기회비용을 따질 경우 행정사에게 위임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다.

또한 법원 경매의 경우 감정평가서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데 반해, 오

토마트 공매의 감정평가서는 특이사항 및 교환경력 부분, 수리경력 부분, 도색 경력 부분, 굴곡발생 부분, 흠집발생 부분 등 해당 자동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경매가 재테크가 될 수 있는 이유

이상에서 법원 경매와 오토마트 공매에 대해 살펴봤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

는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이다. 너무 감정평가서만 신뢰하면 안 되고 직접 자기 눈으로 입찰할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휠하우스, A필러, B필러, C필러 사고 차량의 입찰은 피해야 한다. 특히 타이어의 경우 수익을 갹아먹는 품목 중 하나이니 트레이드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경매는 자동차를 매매해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운행할 자동차를 낙찰받는 것만으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중고 자동차를 구매해봤다면 중고 자동차 구매 시 딜러 수수료 등 자동차 매수 비용 외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딜러의 마진까지 세이브되고, 가장 근본적으로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재테크라 하기에 적절한 이유다.📍

Tip 오토마트 공매에 제공되는 감정평가서 예시

2. 考點分析

醫學中醫學史與各科 各科專業理論知識、臨床專業知識(內外科、婦產科、兒科、皮膚科、泌尿科、眼科、耳鼻喉科、口腔醫學、神經學、精神醫學、檢驗學、藥理學、藥劑學、預防醫學、衛生學、營養學)

專業課：基礎醫學與臨床醫學知識

● 基礎醫學類：生物學、解剖學、生理學、生物化學、藥理學、藥劑學、預防醫學、衛生學、營養學

● 臨床醫學類：內科學、外科學、婦產科學、兒科學、皮膚泌尿科學、眼科、耳鼻喉科學、口腔科學、神經科學、精神科學、檢驗科學、藥理科學、藥劑科學、預防醫學、衛生學、營養學

3. 考點分析

基礎醫學類：生物學	內外科	
內外科	內外科	
婦產科	婦產科	
兒科	兒科	
皮膚泌尿科	皮膚泌尿科	
眼科	眼科	
耳鼻喉科	耳鼻喉科	
口腔醫學	口腔醫學	
神經學	神經學	
精神醫學	精神醫學	
檢驗學	檢驗學	
藥理學	藥理學	
藥劑學	藥劑學	
預防醫學	預防醫學	
衛生學	衛生學	
營養學	營養學	

특이사항

정식수입 차량으로 계산서 발행 가능함. 최초
등록일 2014년 4월 25일, 차량키 2EA, 내비
작동 불능

외장 & 내장 통합 소견(모델연도, 최초등록일,
배기량 확인과 현물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함)
휠 홈집, 운전석 안개등 고정 불량

외장 교환 & 수리 요망 부위

전판별 교환, 굴곡·흙집 부위 외 생활 잔흙집
일부 있음. 보험 수리 1회 12,106,000원 이력
있음. 차량 상태 및 사고 유무 입찰자 현물 직
접 확인 요망. 판금 도색 4부위 요망

차량상태

교환경력 부분 : K, M, Q
수리경력 부분 : I
도색경력 부분 : I, K, M, Q
굴곡발생 부분 : C, H
흡집발생 부분 : I, Q
기타 유의 사항 : 현물 반드시 확인 요망

A 뒷범퍼 C 뒷펜더(우) D 트렁크 E 뒷펜더(좌)
F 뒷도어(우) G 루프 H 뒷도어(좌) I 앞도어(우)
J 앞도어(좌) K 앞펜더(우) M 보닛 O 앞펜더
(좌) Q 앞범퍼

이번 사보 활동에 참여해보니



넥센 대담
김인 과장

사보 참여가 처음이어서 약간의 어리둥절함(?)도 있었지만, 상당히 재미있고 신선한 자리였습니다. 공통의 관심사인 야구를 통해 다른 팀에서 일하는 후배 사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같이 참여한 박대희 대리, 김희진 대리, 김한나 사원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넥센 대담
박대희 대리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즐겁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태국 음식점 장소 선정도 괜찮았고요. 앞으로도 사우들에게 생소한 맛집에서 넥센 대담을 진행하면 참석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넥센 대담
김희진 대리

다른 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야구 이야기뿐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과음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욱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멘토 앤 멘티
김재영 주임연구원

오랜만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해본 활동은 아니었지만 후배와 함께 경험했다는 게 의미 있었습니다. 물만의 공감대가 형성된 기분입니다. 다른 사우들도 사보의 활동 코너에 참여하면 동료 간 의사소통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해피데이
안현인 사우의 아내 임주희 씨

평소 남편이 바빠 나들이라고는 집 근처 공원에 나가는 게 다였고, 한번 외출하려 해도 남편 쉬는 날 맞춰야 하니 아이들이 많이 심심해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이들과 저, 남편 모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사진 아저씨가 내가 거북이 들고 있는 거 찍어줬다!”고 신나서 얘기하곤 한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 스토리
강서지점 정석환 사우

거의 5년 만에 관람한 연극인 것 같아요. 바쁜 회사 생활 중에 문화 생활을 하게 되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매번 회식 자리에서는 일 얘기가 전부였는데 이번에는 연극을 함께 보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색달랐습니다. 연극 관람 & 회식 코스, 강추합니다!

“

참여해주세요

〈헬로우넥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회사, 팀 내 이슈 자랑하기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 직접 만든 요리 레시피 공유하기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독자엽서 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퀴즈에 당첨되신 분께는 1월 중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은 2월 15일까지 아래 사보 담당자에게 연락 주세요.

연락이 없을 시 당첨은 무효 처리됩니다.

사보 담당자 055-370-4118 hellonexen@nexentire.co.kr

”

〈헬로우넥센〉 곳곳에 숨은 넥세니를 찾아보세요!

사보 곳곳에 숨어 있는 넥세니를 찾아 페이지를 모두 적어 보내주세요.
예: 쉬어매드니스, 동물 친구들, 키덜트 문화 (총 3곳)



지난 호 정답



퀴즈 당첨자

- | | |
|--------------------------|---------------------|
| 조복형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연암로 | 김학인 경남 양산시 오봉로 |
| 조재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202번길 | 정혜련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
| 김주하 경남 양산시 양주로 | 정여주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
| 배원주 강원 춘천시 공지로 | 최영현 부산시 금정구 수림로72번길 |
| 편정범 경남 창원군 창녕읍 낙영길 | 박재욱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48길 |

※ 사보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독자엽서에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사보 담당자에게 연락 주세요. 즐거운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055-370-4118 hellonexen@nexentire.co.kr

※정정합니다. 〈헬로우넥센〉 지난호 '카 앤 타이어'의 엔진오일 규격 중 점도 규격 문단에서 고온 특성 등급(16~60W: 100℃ 기준)을 고온 특성 등급 (16~60: 100℃ 기준)으로, 'N Hero'에서 최상현 사우 아내 '이유다 씨'를 '이루다 씨'로 정정합니다.

관리받는 정수기처럼 타이어도 렌탈하자!

매일 쓰는 정수기는 꼼꼼하게 관리 받으면서 매일 타는 타이어는 왜 관리 받지 않았을까요?

이제 타이어도 관리 받는 렌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안전점검 서비스까지

신개념 타이어 렌탈서비스, 넥스트 레벨을 만나 보세요!



월 1만원에 최고급 타이어를 가져다!



월 1만원도 많다? 제휴카드만 있으면 0원!



31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서비스 무상 제공
ZIC 프리미엄 합성유 3회 무상제공 등



제휴카드로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 추가 혜택까지

엔진오일 무상교환

고급 프리미엄 합성유 ZIC X7
3회 무상 제공 (4개 계약 기준)



정기 방문점검 무상 서비스

(차량 10대 항목 점검)

Door to Door
무상 서비스

고객이 계신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차량을 인수 받아
점검 후 되돌려 드리는
진정한 Door To Door 무상 서비스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차량 10대 항목 점검)



타이어 위치교환
무상 서비스



경정비 공임
30% 할인

무상점검 외 교체비용 발생 시
정비 공임의 30%할인

N' Fera AU5(중형) 월 9,100원

•엔페라 215 55 17 / 등록비 5만원, 36개월 중형차량 계약 기준
제휴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시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전화 1855-0100

넥스트레벨



NEXT LEVEL

신개념 타이어 렌탈서비스 - 넥스트레벨